

확인

씬/1 노부부집 정원 (N)

어두운 밤. 테라스 한 켠에 놓인 출산상자에서 출산을 앞 둔 어미개가 킁킁대고있다.  
조명을 어둡게 밝히고, 출산의 고통을 겪는 어미 개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노부부.  
잠시의 시간이 흐르고...마침내 어미 개는 출산을 시작한다.  
어미의 다리 사이로 양막에 싸인 채 빠져 나오는 강아지.  
양막이 제거된 강아지는 어미개의 젖을 향해 파고들고...  
시간을 두고 두 번째 강아지가 역시 양막에 싸여져 어미의 몸을 빠져 나오는 중에...  
마침내 출산을 마친 어미개의 젖을 힘차게 빨아대는 4마리의 강아지가 보인다.

며칠 후.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녘.  
낮은 담장을 조심스레 뛰어 넘는 그림자가 보인다.  
두리번대며 무엇인가를 찾는 그림자의 눈에 크고 예쁜 개집이 들어온다.  
개집을 향해 다가가 손전등을 비추면...개 집 앞에 죽은 듯 누워있는 강아지.  
이때, 개집 안에 있던 어미개의 눈으로...살그머니 강아지를 움켜쥐는 어린아이의 손이 보인다.  
다. 그리고 사라지는 강아지...어미개의 슬픈 눈빛만이 남는다.

씬/2 신작로 (새벽)

노부부의 집을 뒤로 하고 달려오는 거친 숨소리가 들린다.  
어둠이 걷히고 여명이 밝아온다.  
강아지를 품에 안고 달려오는 찬이 (11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있다.  
굳은 얼굴로 뛰어가던 찬이의 다리가 천천히 속도를 늦춘다.  
찬이의 가슴 속에서 강아지가 꿈틀댄다. 옷 속으로...강아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찬이.  
찬이의 시선으로...꿈틀대며 자신을 올려다보는 강아지가...점점 선명하게 보여진다.

씬/3 찬이집 방 (D)

무슨 꿈을 꾸는지 싱긋싱긋하며 잠들어 있는 소이 (6세)가 보인다.  
그런 소이의 얼굴을 파고드는 강아지.  
소이 간지러운 듯 얼굴을 긁어대다 마침내 졸린 눈을 뜬다. 서서히 보여지는 강아지.

소이 : !!!! 어? 강아지다! (놀라서 벌떡 일어나 앉는다)  
찬이 : (무뚝뚝하게) 생일 선물이야. 강아지 갖고 싶다며?  
소이 : 정말? 이야아아아~ (강아지 안고 팔짝팔짝 뛰며 좋아한다)

소이의 품에 안겨 이리 저리 흔들리는 강아지의 모습이 보여지는 중에 ... 잠전.

소이 : (OFF) 오빠, 우리 이 강아지 이름 마음대로 하자.

"네사랑 마음이"

확인위탁  
frature

찬이 : (OFF) 마음이?  
소이 : (OFF) 나 엄마한테 강아지 갖다 달라고 기도했거든. 근데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았  
나봐.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자 응?  
찬이 : (OFF) 야 그래도 강아지 이름이 마음이가 뭐냐?  
소이 : (OFF) 뭐 어때? 내 마음이다 뭐!!

## 타이틀 - 純 情 (가제)

### 씬/4 골목길 (새벽)

동이 터오는 새벽길을 달려오는 마음이 (6개월정도)가 보인다. 그 뒤로 우유를 담은 가방을  
메고 달려오는 찬이. 익숙하게 집 앞에 우유를 놓곤...다음 집을 향해 뛰기 시작한다.  
찬이 보다 앞서 달리는 마음이...달리다 물웅덩이를 발견하곤 옆으로 필쩍 뛰어 넘는다.  
마음을 따라 물웅덩이를 피하는 찬이.  
찬이 마음을 보곤 씩 웃으면...마음이 킁킁 짓는다. (Dissolve)

### 씬/5 찬이집 마당 (D)

소이 : 손 ... 손!! ... 앉아 ... 앉아!! ... 일어 서 ... 일어 서!!

마당에 엎드린 채, 지루한 듯 하품을 해대는 마음이.  
소이의 거듭된 지시에도 불구하고 ... 마음이는 무시하며 고개를 돌려 버린다.

소이 : (약 올라서) 마음이 너! 자꾸 엄마 말 안 들으면 뽀뽀한다! 뽀뽀! (회초리로 땅 탁  
치는데)  
찬이 : (OFF) 야! 너 이불에 자꾸 오줌 싸면 뽀뽀한다 그랬지! 진짜 맞아볼래?!  
소이 : !!! (흠칫 놀라 보면)

찬이, 오줌 싼 이불을 들고 나와 빨래 줄에 널며 씩씩댄다.

소이 : 내 내가 싼 거 아니다 뭐?  
찬이 : 그럼? 이 나이에 내가 싸리? 니가 안 싸면 누가 싼데?  
소이 : ... (마음이 가리키며) 애가 싼 거야.  
마음이 : !!! (놀란 눈으로 소이를 본다)  
찬이 : 뭐? (기가 막히다)  
소이 : 진짜야. 어제 마음이가 들어와서 오줌 싸고 나갔어. 그치 마음아?  
마음이 : ... (낮게 으르렁댄다)

찬이 : 그럼 이걸 마음이 뺏으겠네? (이불 틈에서 젖은 팬티를 꺼내 보인다)  
너 뺏스 입는 개 봤어?

소이 : ... (옆으로 살짝 고개 돌리며) 난 아냐. 난 안 썼어.

찬이 : (다가가며) 정말? 정말 안 썼어? 이래도 안 썼어?! (소이 치마 확 올리면)

순간, 팬티를 입지 않은 소이의 하얀 궁둥이가 화면 가득 들어온다.

소이 : 으아아아앙~~ 오빠 똥방구야~~ 오빠 미워어어~~ (방으로 뛰어 들어간다)

이때 들어오는 고모.

고모 : 무슨 일이니 또? (널어진 이불을 보고) 소이가 또 오줌 썼니? 자꾸 왜 그러지? 애  
가 허약한가...

## 씬/6 찬이 방 (D)

소이 방 벽에 붙어 징징대며 색연필로 뭔가 적고 있다...

찬이 : (OFF) 소이야, 오빠 학교 갔다 올게. 고모 왔으니까 밥 먹어.

소이 : 싫어! 안 먹어! 오빠가 똥방구야? 내 궁둥이가 오빠 꺼야?  
오빠 미워! 오빠하곤 말도 안 할 거야!!

찬이 : (OFF) 오빠가 이따 아이스크림 사올께! (뛰어 나가는 소리 들린다)

소이 : (밖에다 대고) 난 똥방구 아니면 한개도 똥방구도 안 먹을거야!!

이때 뚝뚝히 문 열리고...

마음이 마루에 올라가 앉아 방안을 보고 있다.

방 벽에 붙여진 도화지에 색연필로 똥똥똥똥 철자도 틀리게 열심히 적고 있는 소이.

‘소이 궁둥이 똥 -1000원’ 그 옆에...‘오줌 조금 싸슴 -100원’ 보인다.

마음이의 시선에서 보이는...방 안 가득 붙어있는 도화지들.

찬이가 잘하고 못한 일들이...그 옆으로는 소이가 잘하고 못한 일들이 줄줄이 적혀있다.

그리고 소이가 그린...엄마 그림들...마음이 그림들이 여기저기 덕지덕지 붙어있다.

소이 : 두고 봐! 엄마 오면 내가 다 일러바칠 거야! 나만 인형 많이 사 달라 그럴 꺼야!

소이, 방금 써넣은 도화지가 떨어지지 않게 땡땡 벽을 치는데...

와중에 벽에 붙어있던 그림 한 장이 툭!하고 떨어져 낡은 장롱 밑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마음이 : !!! (벌떡 일어나 장롱 밑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썬/7 교실 (D)

미술시간. 칠판에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적혀있다.  
아이들 열심히 찰흙 판에 자신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부조하고 있다.  
열심히 부조를 완성시켜 나가는 찬이...엄마의 얼굴이 점점 또렷이 떠오른다.  
찬이, 완성된 작품 밑에...'엄마'라고 쓴다.  
잠시 후, 자신이 만든 작품을 내보이며 한명씩 일어나서 설명을 하고 앉는 빠른 시간들...

아이1 :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만화 주인공 이누야사입니다. 저는 이누야사를 만나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귀신들과 잘 싸울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이2 : 저는 오락 카트라이더의 운영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좋은 차를 달라고 즐라보겠습니다.  
아이3 : 저는 꼭 비 오빠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그래서...저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이들 와~ 하고 웃는 중에...서서히 찬이의 얼굴이 굳어진다.  
잠시 후, 선생님이 부르는 소리에 정신을 차리는 찬이.

여선생 : 자 찬이는 누구를 왜 만나보고 싶은지 얘기해볼까?  
찬이 : (일어나며 당황한다) 제...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찬이,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작품을 본다. '엄마'라고 쓴 글씨가 보인다.

찬이 : 저는 만나고 싶은 사람이...없습니다.  
여선생 : !!!  
아이들 : !!!  
찬이 : 왜냐하면...아무도 보고 싶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리에 앉는 찬이...창밖을 보면...가을이 깊어가고 있다.

썬/8 PC방 (D)

카트라이더를 하는 아이1 뒤에서 부러운 듯 구경을 하는 찬이.  
옆에 빈자리가 생기자 주머니에서 천원짜리를 하나 빼죽 꺼내보며 만지작댄다...  
하지만 건너편 구멍가게 앞에 놓인 아이스크림통을 보곤 힘없이 다시 돈을 집어넣는다.  
그 틈에 아이2가 빈자리를 차고 들어와 앉는다. 찬이...  
게임 모니터에서는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펼쳐진다. 팡팡 터지는 아이템 공격들.  
찬이는 마치 자신이 조작을 하는 듯 몸을 이리저리 움직인다.  
아이1, 결승점에 들어오지 못한 채 게임 오버되자 신경질적으로 키보드를 내려친다.

아이1 : (찬이를 향해) 야, 너 이거 할 줄 알아?

찬이 : (생각하다가 고개를 힘차게 끄덕인다)

아이1 : 잘해?

찬이 : ...어.

아이1 : 그럼 해봐! (자리에서 일어난다)

자리에 앉아있는 찬이. 카운트다운과 함께 출발신호가 울린다.

하지만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찬이. 당황해 이것저것 키보드를 눌러보지만 정지상태다.

아이1 : (전진키를 누르며) 야! 이걸 눌러야지. 너 진짜 할 줄 아는 거 맞아?

찬이 : (전진키를 눌러보지만 곧 장애물에 부딪혀 빌빌댄다)

아이1 : 아~ 이 새끼. 다 뺨이었잖아? 비켜 새끼!

아이1이 자리에 앉으면서 찬이는 아이에게 밀려 옆으로 넘어진다.

아이2 : 재네 집엔 컴퓨터 없어. 엄마 아빠도 없잖아. 근데 무슨 카트를 하나?

아이1 : 저 새끼 뺨에 돈만 날렸네, 에이. (하면서 게임에 열중한다)

찬이, 그런 아이들을 분하다는 듯 노려보다 주머니에서 천원을 꺼내든다.

카트라이더를 하는 찬이. 차츰 조작법을 익혀 나간다.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한 조작을 하는 찬이. 빠른 속도로 게임에 적응해간다.

아슬아슬하게 2등으로 통과하는 찬이의 카트.

어느새 찬이의 뒤에는 아이들이 모여들어있다.

“정액시간이 3분 남았습니다” 안내소리 들리고...

마지막 게임의 출발선. 카트가 달린다. 1등의 뒤를 뒤 쫓는다.

뒤에서 “달려, 달려!”하며 응원하는 아이들.

마침내 결승점을 앞두고 찬이가 폭탄을 날린다.

1등으로 달리던 카트가 폭탄을 맞은 사이 찬이의 카트가 결승점을 통과한다.

“우와아아~~” 아이들의 환호를 받으며 찬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찬이 : (아이1,2에게) 딴 건 몰라도 난 뺨은 안까거든. (아이들을 뒤로하고 걸어 나간다)

## 썸/9 학교 앞 (D)

PC방을 나와 걸어가던 찬이, 구멍가게 앞에 있는 아이스크림 통이 눈에 들어온다.

주머니를 뒤져보지만 동전 몇 개...

그렇게 길 한 복판에 붙박힌 듯 서있는 찬이의 모습이 작고 외롭게 느껴진다.

이때 들어오는 버스. 찬이 버스를 향해 달려가다...멈칫 선다. 다시 아이스크림통을 본다.

썸/10 버스정류장 (D)

간이의자가 놓여있는 교외의 버스정류장이다. 차들의 왕래도 뜸한 한적한 정류장.  
멈춰 선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들. 소이와 마음이가 찬이를 찾지만 찬이는 보이지 않는다.  
개중에 몇몇 어른들 “오빠 기다리니?” 말을 걸지만...소이는 오직 찬이만 찾는다.  
소이 가웃하는 표정에서...또 다른 버스가 와서 멈추고 사라진다. 여전히 찬이는 없다.  
소이 불안한 마음에...울먹이는데...이때 길 쪽을 보곤 킁킁 짓으며 달려가는 마음이.  
소이 고개를 돌려보면...헐레벌떡 뛰어오는 땀으로 범벅이 된 찬이가 보인다.

소이 : 오빠다!!! (찬이에게 달려가며) 오빠~ 아이스크림 사왔어~~  
찬이 : (달려오며 손에 쥔 비닐봉지를 흔들며 보인다)

썸/11 집으로 가는 길 (D)

코스모스가 한들거리는 소로.

소이 : 이게 무슨 아이스크림이야? 다 녹아버렸잖아!! (울먹인다)

난감한 표정으로, 뽕빠레 아이스크림이 녹아있는 비닐봉지를 보는 찬이.

찬이 : 야 그래도 아이스크림이잖아. 먹어봐.  
소이 : (운다) 몰라~ 오빠 미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찬이 : 야! 나도 버스 탈 돈으로 사온 거라 말야! 기껏 뛰어 왔더니만...먹어 그냥.  
소이 : 으아아앙~~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랑곳 않고 운다)  
찬이 : 그만 울어! 그만 올라니까! 에이!! (비닐봉지를 땅에 던져버린다)

계속 우는 소이...등 돌린 채 화가 나서 씩씩대는 찬이...분위기 안 좋은데...  
그 틈으로...마음이가 비닐봉지 밖으로 흘러나온 아이스크림을 훑아먹는다...  
그러다 맛이 좋은지. 아예 비닐봉지에 안으로 머리를 들이 밀고 훑아대는 마음이.

소이 : ... (그 모습을 보다가 킁킁댄다)  
찬이 : ??? (소이 웃음소리에 돌아보면)

비닐봉지에 머리가 갇혀 앞을 못 보는 마음이. 마음이의 목을 타고 흘러내리는 아이스크림.  
머리를 빼내려고 하지만 빼내지를 못한다.  
마침내 그 모습을 보고 킁킁대는 소이와 찬이...  
마음이는 당황해서 이리저리 뛰고, 이때...어디선가...“앵앵앵” 벌들이 모여든다.  
마음이는 앞을 못 본채,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벌들을 피하느라 정신이 없다.  
마침내 그런 마음이의 우스꽝스런 모습을 보다 배를 잡고 웃어대는 찬이와 소이다.

썬/12 찬이집 마당 (N)

소이는 이미 잠들어 있는 어두운 밤.

찬이가 배가 아픈지 화장지를 들고 방에서 나온다.

마루 밑에서 나온 마음이의 눈에 화장실로 들어가는 찬이가 보인다.

재래식 화장실. 찬이 화장실로 들어와 무서운 듯 망설이다...어쩔 수 없이 변기 위에 앉는다.

승승 들어오는 바람에 흔들리는 백열등. 으스스한 분위기다.

잔뜩 겁을 집어먹고 두리번대는 찬이의 모습에서... 푹! 스프르~ 열리는 화장실 문.

찬이 : !!! (헉! 놀라 보면)

마음이가 문을 열고는 화장실 앞에 쪼그리고 앉아 찬이를 뻔히 바라본다.

찬이 : 놀랐잖아 새끼야! 왜 문을 열고 지랄이야?!

마음이 : ... (찬이를 뻔히 보다 일어나 찬이의 시선에서 사라진다)

찬이 : 새끼가 진짜...

투덜대는 찬이. 하지만 다시 바람이 불고 백열등이 흔들리자 또 무서움이 밀려온다.

찬이 : ...마...마음아...마음아...마음아!

이때 화장실 안으로 고개를 빼꼼 들이키는 마음이.

찬이 : ... 심심하면 고기 앉아있어도 돼.

마음이 : ... (찬이를 바라보다 다시 찬이의 시선에서 사라진다)

찬이 : 야아아아~ 일루와! 무섭단 말야!

다시 화장실 안으로 고개를 빼꼼 들이키는 마음이. 그제서야 화장실 앞에 쪼그려 앉는다.

찬이 : ... (쪽팔려서 마음이를 흘깃대다) 너 소이 화장실 가면 맨날 이렇게 따라다니지?

마음이 : ...

찬이 : (배가 아픈 듯 끄끙대며) 너 소이한테 잘해. 넌 소이 생일선물이니까...알지?

찬이 끄끙대다 뿌우웅~ 소리난다.

마음이 : ... (고개를 돌린다)

찬이 : ... (쪽팔려 하는 표정에서) -- (F.O)

썸/13 고모집 (N)

(F.I) 계란 후라이가 접시에 담겨진다. 마루에 앉아있는 찬이 앞에 계란 후라이를 놓아주는 고모. 밥상 옆에 김치가 담겨진 비닐봉지를 내려놓는다.

고모 : 잊지 말고 김치 꼭 가져가.

찬이 : 네.

고모 : (찬이 옆에 앉으며) 소이도 데려오지? 요 며칠 못 가봤는데...

찬이 : (밥을 먹으며) 개는 버스에 안 태워주잖아요. 마음이 안가면 저도 안 간다고...

고모 : 원 애도 참. 무슨 개한테 그렇게 정을 준다니...그래도 엄마 정 못 받고 자라면서도 정 많은 거 보면 기특해...

측은하다는 듯 밥을 먹고 있는 찬이의 머리를 쓸어주는 고모.

현관문, 삐걱 소리를 내며...작업복 차림의 고모부가 들어온다. 한쪽 다리가 불편해 보인다.

고모 : 왔어요?

찬이 : (꾸벅 고개를 숙여 인사한다)

고모부 : 그래, 밥 먹어. (하며 화장실로 들어가 세수를 한다)

고모 : 식사는요?

고모부 : 됐어. 먹었어 (하며 찬이 맞은편에 앉는다)

고모 : 회사에 얘기는 해 봤어요?

고모부 :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해? 내 처지 몰라? 그나마 일하다 작살났으니까 데리고 있는 건데, 나만 못가겠다 그래? 그럼 어디서 날 받아주는데?

찬이, 고모와 고모부가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건지 눈치를 살핀다.

고모부 : (찬이를 눈짓으로 가리키며 고모에게) 얘기했어?

고모 : ..... 아뇨, 아직...

고모부 : (홀기다 찬이보며) 흠... 찬이야. 고모네 이사 가게 됐다.

찬이 : !!! (흠칫 놀란다)

고모 : 그게 저기... 고모부 회사가 이사를 가서 안 따라 갈 수가 없게 됐어.

그렇다고 우리 형편에 니들을 데리고 갈 수도 없고...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다.

찬이 : .....

고모 : 엄마한테라도 연락이 되면 좋을텐데 핸드폰도 안되고... 어쩔 이렇게 연락을 뚝 끊어버린다니...

고모부 : 그걸 아직도 몰라? 서방도 죽었겠다, 애들 버리고, 어디 가서 팔자 고친 거 아냐.

고모 : 애 앞에서 무슨 말이에요?

고모부 :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일 년이 넘도록 연락 없으면 계산 다 나오는 거 아냐?

찬이, 숟가락을 놓고 일어선다.



고모 : 찬이야. 왜...? 더 먹어, 응?  
 찬이 : 가 봐야 돼요. 소이가 기다려요.  
 고모부 : 야, 임마. 아빠 엄마가 없으면 니가 가장이야. 가장이면 어떤 게 동생한테 좋은 일인지 생각을 해야지. 무작정 기다린다고 오지 않을 사람이 오니? 일단 고아원에 들어 가. 거기서 니 엄마 기다려도 되잖아.  
 찬이 : 우리 고아 아니에요. 엄마가 있는데 왜 고아원에 가요?  
 고모부 : 이 자식이... 어른이 말하면 알겠습니다 해야지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답이야?

찬이 격하게 뛰쳐나간다.

고모부는 마음이 안 좋은지 “에이...”하면서 방으로 들어가고  
 고모, “찬이야, 찬이야” 부르며 따라 나간다.  
 비닐봉지에 담겨진 김치만이 밥상 옆에 덩그러니 놓여있다.

#### 씬/14 고모 집 앞 골목 (N)

가로등 불빛 아래, 고개를 숙인 채 고모에게 붙들려 서있는 찬이.

고모 : 고모가 많이 미안해. 고모부가 남들처럼 몸만 성했어도...어떻게 어른들은 다 니들한테 미안한 것만 하니...  
 찬이 : (고개를 숙인 채) 괜찮아요.  
 고모 : (그런 찬이를 보니 눈물이 난다) 고모가 이사 가도 생활비는 보내줄게. 힘들면 전화하고... 그럼 고모가 올게, 알았지?  
 찬이 :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발로 흙만 쳐낼 뿐이다)  
 고모 : 그리고 이걸... (망설이며 쪽지를 꺼낸다) 아직도 여기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한테서 마지막 연락이 왔던 주소야.

찬이, 놀란 듯 고개를 들어 고모를 본다. 고모는 차마 찬이의 눈을 마주 바라보지 못한다. 골목길 어디선가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려온다.

고모 : (찬이 손에 쪽지를 쥐어주며) 애 때문에 가 봐야겠다. 전화해, 찬이야. 꼭. 알았지?

하며 뒤돌아 걸어간다. 고모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떨어진다.  
 손안의 쪽지를 꼭 움켜쥔 찬이, 돌아서서 고모 반대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한다.  
 고모와 찬이 사이가 점점 멀어진다.  
 아무도 없이 텅 빈 골목길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남아있다....

#### 씬/15 버스 정류장 (N)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제멋대로 지어 만든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 소이.

소이 : 오빠는 언제 올까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오빠는 언제 올까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 옆에는 앞발에 턱을 괴고 마음이가 앉아있다.

소이 : 오빠는 언제 올까 빨리 왔으면 좋겠다~

#### 씬/16 버스 터미널 (N)

출발을 앞 둔 버스가 시동을 켜 채 서 있다.

쪽지를 짹 움켜쥔 채로 대합실 밖 의자에 멍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찬이.

찬이가 탈 버스가 출발한다. 찬이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있다.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들고 있던 비닐봉지로 찬이를 톡 친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는 찬이. 하지만 버스는 이미 출발한 후다.

터미널에 있는 시계를 보는 찬이. 초조한 듯 서성거린다.

#### 씬/17 버스 정류장 (N)

버스가 도착할 때마다 고개를 쪽 빼고 찬이가 내리는지를 살피는 소이.

찬이가 내리지 않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실망하는 소이와 달리

마음이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눈만 꿈뻑 꿈뻑 할 뿐이다.

버스가 도착했다, 손님들을 내려놓고 출발하기를 몇 차례.

찬이를 기다리기 지친 듯 소이는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다.

마음이의 꼬리가 살랑살랑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소이의 얼굴을 혀로 핥는다.

소이 : (자다 깨어나) 왜에? 오빠 왔어?

마음이가 그렇다는 듯 “컹”하고 짖는다.

소이, 눈을 비비고 보면 찬이는 커녕 버스도 안왔다.

소이 : 뭐야...안 왔잖아 이이이잉~~ 오빠~ 오빠~ (울먹인다)

하지만, 마음이는 차도 가까이 나가서 킁킁 짖어댄다.

이때, 저 끝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버스가 달려온다.

잠시 후, 정류장에 도착한 버스에서 허겁지겁 찬이가 내린다.

마음이, 킁킁 짓으며 꼬리를 사랑살랑 흔들고 찬이를 반긴다.  
하지만 찬이를 발견한 소이...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온다.

소이 : 으아아아아앙~~ 오빠 똥방구야!!!!

### 씬/18 집으로 가는 길 (N)

마음이가 앞장을 서는 어둠 속으로...아직도 훌쩍이는 소이를 업고 가는 찬이가 보인다.

찬이 : 깜깜해서 많이 무서웠어?  
소이 : 아니. 마음이가 있어서 조금 무서웠어.  
찬이 : 근데 왜 그렇게 많이 울었어?  
소이 : ... 많이 무서웠어. 오빠 안 올까봐...  
찬이 : ... 바보야. 오빠가 왜 안 오냐? 집이 여긴데.  
소이 : 엄마는 안 오잖아. 집이 여긴데.  
찬이 : ...

소이 : 오빠. 엄마도 올 때 거기로 와?  
찬이 : ... 응.  
소이 : 그럼 우리 거기 가서 맨날 맨날 기다리자. 그럼 오잖아.

어느새 찬이의 등에서 잠이든 소이...  
소이를 업고 가던 찬이의 눈에서...어느 순간...눈물이 뚝...흘러내린다.  
그런 찬이를 보며 킁킁대며 다가와 찬이의 곁에 붙는 마음이... (F.O)

### 씬/19 찬이집 부엌 (D)

(F.I) 소이를 씻기느라 아웅다웅하는 찬이가 보인다.

소이 : 싫어! 머리는 안 감을 거야~~ 하지 마아아~  
찬이 : 야! 머리에서 똥냄새 난단 말야. 너 머리에서 똥냄새 나면 좋아?!  
소이 : 그래도 싫어, 눈 아프단 말야~~  
찬이 : 가만 좀 있어봐! (소이 끌어다 머리에 물 뿌리면)  
소이 : 오빠 미워~ 오빠 똥방구야~ (찬이 밀쳐낸다)  
찬이 : 아 진짜...(징징대는 소이 바라보다) 소이야. 우리 머리감고 책가방 보러 갈까?  
소이 : 정말?  
찬이 : (비누 들어 보이며) 머리만 감고 가자 어때?  
소이 : ... (갈등하다) 그럼 이거로 감아 줘. (한쪽에 있던 만화 캐릭터의 어린이 샴푸통을 내밀곤 머리를 숙인다)

찬이 : (샴푸통을 흔들며) 짜보지만...이미 다 써서 샴푸는 나오지 않는다) 잠깐만 기다려.  
(뚜껑을 열고 물을 부어서 흔들며) 야 너 머리 감는 게 그렇게 싫냐? 그냥 눈만 딱  
감고 있으면 되잖아.

소이 : 싫어! 눈 감으면 깜깜하잖아.

찬이 소이 머리에 샴푸 물을 따르고 머리를 감긴다. 금새 소이의 머리 위로 거품이 인다.

소이 : 무섭단 말야...나 혼자 있는 거 같아서...

## 썸/20 가방가게 (N)

가방가게 진열창 안으로 예쁜 분홍색 책가방이 보인다.

창에 딱 붙어서 분홍색 가방을 보며 흥분하는 소이. 너무나 갖고 싶은 책가방이다.

마음에도 창에 앞발을 올린 채 책가방을 보고 있다. 마음이의 눈에 분홍색 가방이 담긴다.

소이 : 오빠, 나 아직 학교 가면 안돼?

찬이 : 아직 6살이잖아. 학교는 8살 때 가는 거란 말야.

소이 : 그럼, 책가방 먼저 사놓고 8살 때 메고 가면 되겠다. 그치?

찬이 : 안돼.

소이 : 왜? 왜 안돼?

찬이 : ... 오래 되면 썩어.

소이 : 책가방이 왜 썩어?

찬이 : 썩어. 오래되면 다 썩는 거야.

소이 : 그럼 저 안에 있으면 안 썩어?

찬이 : ... 하여튼! 8살 되면 사줄 거니까 그렇게 알어!

소이 시무룩해진다. 입술을 움찔대다...다시 책가방을 보는데...

주인의 손에 들려 사라지는 분홍색 책가방.

소이 : !!! (영문 몰라 하는데...)

잠시 후, 소이 또래의 여자아이가, 분홍색 책가방을 메고 나온다.

엄마 손을 잡은 채 신나서 짹짹 뛰쳐 가는 또래의 여자 아이...

마음이 : !!! (여자아이 등에 매달려 떨어지는 책가방을 향해 킁킁 짚어댄다)

찬이 : ... (소이 눈치 보는데)

소이 : (들릴락말락 입술을 움찔댄다) 썩을 건데~ 썩을 건데~ 썩을 건데~ 썩을 건데~  
(눈가에 눈물이 촉촉하다)

썸/21 찬이집 방 (N)

찬이집 마당으론 온통 소이의 우는 소리만이 가득하다.

깡깡대며 방 앞에서 우두커니 방을 바라보는 마음이의 눈이 안타까워 보인다.

방안에 퍼질러 앉아 목을 놓고 울어대는 소이. 그 옆으론 잔뜩 화가 난 찬이가 있다.

소이 : 엄마 데려 와~~ 엄마~~ 엄마~~ 엄마 데려 와아아아!!!

찬이 : 그만해! 시끄러!!

소이 : (더 크게) 엄마 데려 와! 엄마아아~~!!! 엄마아아아!!!

찬이 : (벌컥) 야 이 바보야!! 엄마 안 와!! 이제 엄마 안 온단 말야!!

소이 : (멈칫 놀라다...다시 울며) 와!! 엄마 와!! 엄마가 왜 안와?! 오빠 똥방구야!!

찬이 : 똑똑히 들어 너! 우리한테 엄마 없어! 울 거면 벌써 왔어! 안 울 거니까 연락도 없는 거야! 알아?!!

소이 : 아니야...엄마 와...엄마 올거야...그치 오빠....

찬이 : 엄마...죽었어. 어차피 안 올 거니까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야....그니까 너 한번만 더 엄마 찾아봐. 너 혼자 두고 확 도망가 버릴꺼야! 알았어!!

하며 뒤돌아서서 찬이의 어깨가 떨린다.

소이 : (놀라서) 그러지 마 오빠야...나 안 울게...안 울게 그러지 마아아...이제 오빠 말 잘 들을게...나 혼자 두고 가지 마아아...(눈물범벅이다)

그런 소이를 보다 눈물이 나는지 천장을 바라본다.

소이 : (울음을 참으려고 애쓴다. 딸꾹질을 하듯 호흡이 가쁘다) 오빠...엄마 안 죽었지? 엄마 올거지? 그치?

방문을 확 열고 나가버리는 찬이.

잠시 후...주먹으로 눈물을 닦으며 벽에 붙어있는 잘못된 일이 적힌 도화지에...

<오빠랑 싸움 -100원 / 울어줌 -100원>을 적어 넣는 소이가 보인다.

열려진 방문 틈새로...그런 소이를...마음이가 보고 있다.

인서트> 밤하늘에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걸려있다.

썸/22 찬이 집 방안 (N)

소이, 눈가에 눈물 자국이 남아있는 채로 썹썹 잠들어있다.

소이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는 찬이,

조심스럽게 소이의 머리를 쓸어 넘겨준다.

썸/23 찬이 집 마당과 마루 (N)

잠이 안 오는 듯 찬이가 마루에 나와 앉는다.  
마음이 조용조용 다가와 마루 아래 댓돌에 기대앉는다.  
그렇게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찬이와 마음이.

찬이 : (적막을 깨듯 나직이) 마음아... 마음아...

마음이 찬이를 쳐다본다.

찬이 : (마음이의 등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너도... 엄마 보고 싶지? 미안해, 마음아...

마음이, 찬이의 다리에 얼굴을 묻는다.  
찬이는 마음을 안은 채로 다시 밤하늘을 올려다본다.  
까만 밤하늘에서 하얀 눈송이가 하나 둘씩 떨어지기 시작한다 (F.O)

썸/24 강 가 (D)

(F.I) 강 가운데는 채 얼음이 얼지 않은 초겨울의 강 가.  
드문드문 얼음낚시를 하고 있는 사람들 옆으로  
“이 야호~” 소리와 함께 썰매 위에 엮드려 얼음 위를 달리는 찬이가 보인다.  
그 뒤를 따라 뛰는 소이와 마음이...  
소이는 찬이를 따라가며 저도 타겠다고 졸라댄다.  
아랑곳없이 썰매에 몸을 싣고 힘차게 얼음 위를 달리는 찬이, 그러다...  
쿵! 장애물에 부딪혀 나뉘군다.  
“오빠!” 놀란 소이와 마음이 뛰어와 찬이를 흔들지만 찬이는 눈을 감은 채 움직임이 없다  
“오빠... 오빠...” 불려도 대답이 없자 겁에 질린 소이, 울음보가 터지려는 순간  
찬이의 눈이 살며시 떠지면서 입가에 배시시 장난기어린 웃음이 감돈다.  
깔깔거리며 웃는 찬이.  
“오빠!” 소리를 지르며 찬이에게 달려드는 소이와 마음이.  
톡톡거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잠시 후, 소이가 탄 썰매를 끌어주는 마음이 보인다. “이랴! 이랴~” 신이 난 소이.  
마음도 즐거워하는 소이를 보며 신이 나서 썰매를 끈다.  
소이가 탄 썰매를 따라다니던 찬이 갑자기 엉덩이를 움켜쥔다.

찬이 : 앗! 나올 것 같애. (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소이 : 그냥 아무데나 싸.

찬이 : 내가 너냐? 아무데나 싸게. 똥 싸고 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하고 멀어지는데)

소이 : 오빠. 나 혼자 썰매 타도 돼?

찬이 : 안돼! 기다려!

소이 : 치... (입 삐죽댄다)

키 큰 풀들이 제법 무성하게 자라있는 쪽으로 모습을 감추는 찬이.  
썰매를 몸에 묶고 소이를 바라보는 마음이.

소이 : 안돼. 오빠가 기다리래.

마음이, 소이를 바라보다 혼자서 썰매를 끌고 얼음 위를 짱충짱충 뛰어다니다 미끄러진다.  
그 모습을 보고 깔깔대는 소이. 킁킁대며 신나서 뛰어 다니는 마음이.  
소이의 웃음소리와 마음이가 짓는 소리가 찬이의 귀에 들려온다.  
고개를 들어보지만 풀에 가려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얼음위에서 미끄러지면서도 재밌는 듯 빈 썰매를 끌고 강 안쪽으로 뛰어 가는 마음이.  
이 때 우지끈! 마음이 발밑에 있던 얼음이 쑥 빠져 버린다.  
순식간에 얼음 밑으로 빠지는 마음이.

소이 : 마음아, 마음아!!!

일을 마치고 일어나는 찬이, 소이의 외침과 함께 물에 빠진 마음을 목격한다.

찬이 : (놀라서) 소이야! 움직이지 마!! (서둘러 달려간다) 움직이면 안 돼!! 그대로 있어!!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마음이, 빠져 나오려고 하지만 썰매 때문에 쉽지 않다.

소이 : 마음아~ 마음아~

하며 마음이쪽으로 살살 걸음을 옮기는 소이.  
소이는 손을 내밀어 마음을 잡으려 하지만 손이 닿지 않는다.  
소이, 한걸음 더 내 딛는 순간...우지끈하는 소리가 들린다.  
순간, 달려오는 찬이를 돌아보는 소이.

소이 : 오빠... (운명을 예측하기라도 한 눈빛이다)

얼음이 꺼지며 순식간에 얼음 밑으로 빠져 버리는 소이.

찬이 : 안 돼!! 소이야!!!

찬이, 소이에게 달려가려고 하지만  
어느새 달려온 낚시꾼이 찬이를 잡고 위험하다며 놓아주지를 않는다.  
낚시꾼에게 잡혀 절규하는 찬이의 모습.

썰매를 떨어트리고 얼음위로 올라온 마음이, 소이가 사라진 곳을 보지만 이미 소이는 보이지 않는다.  
컹컹! 짚어대다가 킁킁거리며 소이를 찾는 마음이.  
그 마음이의 목에 남아있는 썰매 목줄만이 얼음 위를 쓸어대고 있다.

씬/25 몽타쥬 (D/N)

- 화장터 굴뚝 위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차츰 차츰 가늘게 가늘게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  
잠시 후, 숨쉬기를 그친 화장터 굴뚝 위로...한 점 한 점 눈발이 날리기 시작한다.
- 찬이집 마당에는 아무도 밟은 자국이 없이...소복이 눈이 쌓이고 있다.  
마음이가 있던 마루 밑으로도...소이가 투정을 부리며 목욕을 하던 부엌으로도...  
빼꼼이 열려있는 화장실 안으로도 눈발이 날려 들어온다.  
그리고 댓돌 위에 놓여 있는 신발...찬이의 신발만이 놓여있는 그 위로도 눈이 쌓인다.
- 찬이방. 불을 키지 않아 어두운 방으로...소이의 유골을 담은 나무상자가 보인다.  
그리고 그 옆에 죽은 듯 웅크리고 누워있는 찬이의 뒷모습이 보인다.  
서서히 비취지는 방 풍경. 소이의 베게...이불들...  
벽에는...엄마 그림들과...소이가 적고 그린 모든 것들이 찬찬히 보여진다.  
그리고 방바닥으로는...소이가 그린 그림이 찢겨진 채...뒹굴고 있다.  
모두...마음을 그린 그림이다.
- 버스정류장으로 향하는 길에도 눈이 쌓여간다.  
아무도 오가지 않는 버스정류장...아무도 없는 듯 보이지만...그곳엔 눈을 잔뜩 맞아 몸이 가려진 무엇인가가 보인다.  
잠시 후, 멀리서 버스가 들어온다. “마음아! 마음아!” 어디선가 소이의 소리가 들린다.  
순간, 별떡 눈을 털고 일어나는 무엇...마음이다.  
컹컹! 짚어대는 마음이...하지만 버스는...내릴 사람이 없는지...내쳐 눈발 속으로 사라진다.  
슬픈 눈으로 멀어져가는 버스를 바라보던 마음이...다시 그 자리에 웅크리고 앉는다.  
마음이의 목에는 아직도 썰매를 끌던 목줄이 매달려 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의 몸 위로...다시 눈이 쌓이기 시작한다. (F.O)

씬/26 현금인출코너 (D)

(F.I) 버튼을 누르는 찬이의 손이 보이고...화면에 잔액 50500원이 뜬다.  
잠시 후, 돈을 세는 소리가 들리더니 열리는 창구. 5만원을 꺼내는 찬이의 손이 보인다.



씬/27 가방가게 (D)

쇼 윈도우를 통해 안에 걸려진 분홍색 책가방을 쳐다보고 있는 찬이.  
소이가 옆에 서서 “오빠야, 나 학교 가고 싶다. 책가방이 왜 썩어?”고 말한다.  
찬이, 그 말소리를 향해 고개를 돌리면 아무도 없다.  
(사이)

주인의 손에 의해 들려지는 분홍색 책가방. 책가방이 놓여져 있던 빈자리가 보이는 중에...  
분홍색 책가방을 든 찬이가 가방가게를 나와 터덜터덜 걸어간다.

씬/28 집으로 가는 길 (D)

들꽃이며 들풀들이 피어있던 파란 길에 마른 잎새들만 횡하다.  
분홍색 가방을 한쪽 어깨에 걸쳐 메고 걸어오는 찬이.  
손 끝에서 물 같은 것이 툭툭 떨어진다.  
보면, 아이스크림이 녹아 흘러내리고 있다.  
표정이 없는 찬이의 얼굴.

씬/29 찬이 집 방안 (D)

소이의 유골함 뚜껑이 열려있고 속은 텅 비어있다.  
찬이는 분홍색 가방에 소이가 그린 그림과 잘한 일, 잘못된 일이 적힌 종이를 집어넣는다.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어린이 샴푸 통도 넣는다.  
그리고...그 옆으로 구겨진 종이 하나가 튀어나온다.  
찬이, 종이를 집어 펴면 엄마의 주소가 적혀있는 쪽지다.  
구겨지고 망가진 제 마음을 펴려는 듯 신중하고 예쁘게 종이를 펴고 있는 찬이.

씬/30 신작로 (D)

분홍색 가방을 맨 찬이가 걸어온다. 그 뒤에 사이를 두고 목줄을 끌며 마음이가 따라온다.  
찬이, 걸음을 멈추더니 마음에게 발길질을 해댄다.  
마음이 찬이의 발이 닿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두고 따라온다.  
찬이, 돌을 집어 마음에게 던진다.  
마음이 이번엔 찬이의 돌을 맞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두고 따라온다.

찬이 : 가! 개새끼야. 꼴 보기 싫으니까 꺼져! 꺼린 말야!! (소리를 지른다)

씬/31 버스 정류장 (D)

소이가 늘 앉아있던 그 의자에 찬이가 앉아있다.  
좀 떨어진 곳에서는 마음이가 그런 찬이를 지켜보고 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버스 한 대가 달려와 선다. 찬이, 버스에 올라탄다.

씬/32 버스 안 (D)

보물단지라도 되는 양, 분홍색 가방을 품에 꼭 안고 있는 찬이 너머, 버스 뒷 창문을 통해 찬이가 타고 있는 버스를 따라 힘차게 달려오는 마음이의 모습이 보인다.

씬/33 김천역 (D)

김천역을 알리는 외경이 보여진 후...대합실에 앉아 기차표를 만지작대는 찬이가 보인다.  
기차가 오지 않는 빈 철로가 보여진 후...빈 역 광장이 보여진다. (Dissolve)  
서울발 부산행 열차가 도착한다는 안내 방송이 나온다.  
각자의 짐을 들고 개찰구를 통해 역 구내로 들어가는 사람들.  
찬이도 소이의 가방을 고쳐 메다...홀깃 뒤를 돌아보지만...역 광장엔 아무도 없다.  
개찰구로 걸어가 줄을 서는 찬이...  
이때 험레벌떡 뛰어오던 마음이가 역 광장으로 뛰어 들어온다.  
역 광장을 두리번대며 찬이를 찾던 마음이의 눈에 개찰구를 통과하려는 찬이가 보인다.  
경경! 짚으며 역사 안으로 달려가려는 마음이. 그 순간...

마음이 : 깨갱!! (무엇인가 마음이의 목을 걸어 뒤로 당기는 힘을 느낀다)  
찬이 : !!! (마음이의 소리를 들은 듯 뒤돌아보지만...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

마침내, 개찰구를 통해 역 구내로 들어가는 찬이의 모습이...  
올가미에 걸려 철창에 갇혀지는 마음이의 모습과 교차된다.  
기차에 오르는 찬이와...철창에 갇혀 트럭에 실리는 마음이...  
트럭이 출발하기 시작하면...찬이를 태운 기차도 출발하기 시작한다.  
철창 안에서 몸부림을 치며 찬이가 타고 가는 기차를 향해 짚어대는 마음이.  
마음이의 눈에 '서울 - 부산' 이라는 글씨가 또렷이 보여진다.

씬/34 기차길이 보이는 국도 (D)

달리는 기차와 나란히 국도 변을 달리는 트럭이 보인다.  
뽕짝을 틀어놓고 운전하는 운전자의 얼굴이 백미러를 통해 반만 보여진다.

트럭에는 이미 마음이 맡고도 여러 마리의 개들이 실려 있다.  
멀리 보이는...찬이를 태운 기차를 향해 미친 듯이 짚어대는 마음이.  
마음이 짚어대자 철창 안에 갇힌 개들이 함께 짚어대기 시작한다.

기차 안에 앉아 소이의 가방을 무릎에 놓고 무심히 밖을 바라보는 찬이.  
하지만 찬이의 눈에 철창 안에서 짚어대는 마음이 보일 리가 없다.

마침내...마음이의 시선에서 점점 멀어져가던 기차가 요란한 경적소리와 함께 터널 안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 뒤로...컹컹대며 찬이를 찾는 마음이의 울음소리만이 남는다.

### 썸/35 구포시내 / 외곽 개농장 (D)

국도를 달려 구포시내로 들어온 트럭이 구포역 앞을 지나친다.  
웅크린 마음이의 눈으로 구포역의 외경이 보인다.  
잠시 후, 덜컹이는 비포장길을 지난 트럭이 개농장 앞에 다다르자...  
속중한 철문이 열리고...그 안으로 들어가는 트럭.  
트럭이 들어서자 길게 늘어선 철창 안에 있던 개들이 험하게 짚어대기 시작한다.  
벌떡 일어나 주위를 살피는 마음이의 눈에 두려움이 어린다.

### 썸/36 부산역 (D)

역을 빠져 나오는 찬이. 커다란 대합실을 지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며...어디로 가야  
할지 난감한 표정이다.  
엄마가 있다는 주소를 꺼내보다...낮선 도시를 바라보는 찬이의 얼굴에 불안함이 엿보인다.  
하지만...가방을 고쳐 메고 마음을 다잡는 찬이.  
지하철을 타기 위해 지하로 내려가던 찬이의 눈에 물품보관함이 보인다.  
물품보관함을 지나쳐 노선표를 바라보는 찬이의 모습에서...

### 썸/37 1호선 객차 안 (D)

자리에 앉지 못한 승객들 몇몇이 서있는 객차 안.  
승객들 무릎에 엽서크기의 도화지를 빠르게 올려놓는 씨댕 (9살)과 오마이 (10살)가 보인다.  
굽실대며, 돈을 받는 모습이...앵벌이다.  
이때 뒷 칸에서 서둘러 들어오며 씨댕과 오마이에게 피하라고 눈짓을 주는 형1.

오마이 : (긴장하며) 오마이 갓...

놀라서 재빨리 엽서를 회수하는 씨댕과 오마이. 돈을 받는 등 마는 등 재빨리 다음칸으로

건너가는데...뒤 이어 경찰들이 객차 안으로 들어온다.  
바쁘게 도망가며 뒤를 돌아보는 씨댕. 전 칸에서 경찰들이 쫓아오는 것이 보인다.  
승객들과 부딪히며 서둘러 도망치는 씨댕과 오마이. 경찰들의 추격이 긴박하게 보여진다.  
와중에 부산역에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온다.  
경찰을 피해 도망가던 씨댕과 오마이. 하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맨 앞 칸이다.

씨댕 : 이런 씨댕!  
오마이 : 오마이 갓!

당황하는 씨댕과 오마이. 열차가 역에 들어와 선다. 그리고 점점 다가오는 경찰들...  
긴장된 순간 문이 열리자...재빨리 밖으로 나가던 씨댕이 열차에 오르려던 찬이와 부딪힌다.

씨댕 : 씨댕!! (찬이를 확 노려보곤 재빨리 사라진다)  
찬이 : ... (영문 몰라 씨댕이 사라진 쪽을 바라보는 모습에서)

#### 씬/38 거리 (D)

주소를 보며 엄마의 집을 찾는 찬이가 보인다. 주소를 보기 위해 남의 집을 기웃대는 찬이.  
문이 열리고 엄마 또래의 여자가 나오다 찬이를 본다. 멍뚱하며 뒤로 물러서는 찬이.  
여자, 찬이를 힐끗 보고는 골목을 지나간다. 웬지 두려운 표정의 찬이다...  
(Dissolve) 다리가 아픈 듯 아무데나 앉아 있는 찬이. 이때...오토바이 소리가 들린다.  
눈을 들어보면...우편배달부가 보인다. 우편배달부에게 다가가는 찬이.

#### 씬/39 엄마집 앞 (D)

엄마가 산다는 다세대주택 앞, 골목을 들어오는 찬이.  
몇 집을 거쳐서 마침내 주소를 확인한다. 하지만 머뭇대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망설이다 멀어지고...다시 돌아와 망설이는 찬이의 모습이 보여진다.  
그러다...우편함을 보는 찬이. 201호 우편함에 담겨있는 우편물들.  
찬이 우편물을 빼보면...“이정란” 엄마 이름이 보인다.  
한참동안 엄마의 이름을 바라보다...계단을 바라보는 찬이.  
201호 문 앞에서...두근대는 가슴으로 머뭇대며 초인종을 누르는 찬이.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몇 번이나 초인종을 눌러보다...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쪼그리고 앉는 찬이.  
가방을 벗어서 앞으로 안다가, 가방에 뭐가 묻은 듯 입김을 불어가며 정성껏 닦는다.  
잠시 후...계단 난간에 피곤한 머리를 기대고 졸고 있는 찬이가 보인다.

#### 씬/40 외곽 개 농장 (N)

어둔 밤. 강렬하게 짚어대는 개소리에 개장의 개들은 난리가 난다.  
마음이 무슨 일인가 싶어 밖을 보면...개장을 살피며 걸어오는 남1.남2.  
마음이의 목에 매여져있던 목줄은 이제 보이지 않는다.  
개장을 하나씩 지나오던 남1이 마음이와 눈을 맞춘다. 남1, 씩 웃으며 철창을 여는데...

남2 : 그놈은 오늘 들어온 건데요. 며칠 더 먹여야 근수가 나갈 것 같은데.  
남1 : 그래? 그럼 며칠 더 뒤볼까?

아쉬운 듯 마음이를 지나쳐 가는 남1.남2. 근처에 있던 개장이 열리고 미친 듯 짚어대던 개  
가 끌려 나온다. 양쪽에서 개 목에 걸린 줄을 당기며 도살시설로 향하는 남1.남2.  
잠시 후...깨갱되는 개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에 숨죽이는 개들...이때 어디선가...기차의 경적소리가 들려온다.

마음이 : (벌떡 일어나 귀를 쫓긋 세운다)

인서트 - 요란한 경적소리와 함께 터널 안으로 빨려 들어가던, 찬이를 태운 기차.

마음이 : ... (앞발을 들어 빗장을 툭툭치다 머리로 문을 밀어본다)

남1이 제대로 채우지 않아 힘없이 스윽 열리는 개장.  
마음이가 열려진 문틈으로 기어 나와...조금 열려진 농장의 철문으로 슬며시 다가간다.  
마음이를 보곤 미친 듯이 짚어대는 개들.

남1 : 야 나왔다! 문 잠궤! (올가미를 들고 뛰어오고)  
남2 : (재빨리 철문으로 다가가 문을 잠그려는데)

이때 마음이가 으르렁대며 남2에게 사납게 달려든다.  
그 풀에 으아악! 놀라 빗장을 잡고 뒤로 넘어지는 남2. 와중에 활짝 철문이 열린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개농장을 탈출하는 마음이. 죽기 살기로 달리기 시작한다.  
어느새...따라오던 남1과 남2의 모습도 차차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달리고 달리는 마음이.

#### 씬/41 구포시내 (N)

어느 순간...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구포 시내를 잔뜩 지친 마음이가 어슬렁대고 있다.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 두리번대는 마음이의 눈에 환하게 불을 밝힌 구포역사가 들어온다.

#### 씬/42 엄마집 앞 계단 (N)

어두운 계단. 집 앞에 와서 서는 승용차 소리에 찬이가 놀라 깬다.  
잠시 후...남자 여자의 두런대는 소리가 들리더니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린다.

찬이 : !!! (잔뜩 긴장한 듯 소이의 가방을 세계 끌어안는다)

발걸음 소리와 함께 켜지는 계단의 전등불...마침내 현관 앞에 멈추어 서는 발걸음.  
현관 자물쇠에 걸리는 열쇠. 철컥! 문 열리는데...

찬이 : (OFF) 엄마...?

순간 소스라치게 놀라 찬이 쪽을 바라보는 여자. 엄마다. (35세)  
초췌한 모습으로 엄마를 바라보는 찬이의 눈으로 반가움과 낯설음이 교차한다.

엄마 : 차 찬이야...(멍한 눈길)  
남자 : 다 다음에 보지. 그만 갈게. (당황해서 부랴부랴 계단을 내려가는데)

마치 시간이 정지한 듯, 서로를 바라보는 엄마와 찬이의 눈길이 보여진다.

#### 썸/43 엄마 집 실내 / 엄마 침실 (N)

그다지 크지 않은 다세대주택의 내부. 먼저 들어 온 엄마가 냉장고로 가더니 물을 꺼내 통째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한다. 어정쩡하게 따라 들어와 현관 앞에 서 있는 찬이.

엄마 : 들어 와 앉어. (불을 키곤 열린 방으로 들어간다)

싸늘한 엄마의 모습에 어정쩡하게 소파에 앉아 불안한 눈으로 실내를 둘러보는 찬이.  
한쪽 구석으로 담배꽂초가 담긴 재떨이가 보이고...  
행거에 걸려있는 남자 와이셔츠도 보인다. 엄마 혼자 살고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낯설고 낯설어 잔뜩 긴장한 찬이...

화장대 의자에 앉아 뛰는 가슴을 주체하지 못하는 엄마...하지만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각오를 다지는 듯 입술을 잘근 깨문다.

엄마 : (방에서 나오며) 여긴 어떻게 알고 왔니? (차가운 말투다)  
찬이 : 고 고모가...  
엄마 : 고모가 보낸 거야? 왜? 가서 엄마하고 살라던?  
찬이 : ... (엄마를 본다. 왜 나한테 이렇게 차갑게 굴까...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다)  
엄마 : (초조한 듯 거실장 위에 놓인 담배를 꺼내 물곤 불을 붙인다)  
찬이 : ... (놀랍고 낯선 엄마의 모습에 할 말이 없다)

이때 울리는 엄마의 핸드폰. 액정을 보던 엄마가 다시 방으로 들어간다.  
거실에 앉아있는 찬이. 엄마의 낮지만 잔뜩 화가 난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엄마 : (OFF) 됐어요. 당신은 신경 안 써도 돼요. 글썄 내가 알아서 한다잖아요!

방에서 나오는 엄마.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찬이 : ... 아까 그 아저씨 전화야?

엄마 : ... (가방을 보곤) 그 가방은 뭐니? 소이 꺼야? 소이는 잘 있니?

찬이 : !!! ... 그 그제...엄마... (애기하려는데)

다시 울리는 엄마의 핸드폰. 엄마 씩씩대며 돌아서서 전화 받는다.

엄마 : 내가 애 있다는 거 얘기 안했어? 내가 오라 그런 것도 아니고 갑자기 찾아 온  
걸 왜 나한테 그래요? 글썄 달라지는 거 없어요. 달라질 거 하나도 없대구요!!

찬이 : ... (표정이 굳어진다)

엄마 : 그래 얘기 해.

찬이 : ...

엄마 : ... 엄마 좀 있으면 미국 가서 살 거야.

찬이 : !!! (놀라 본다)

엄마 : 아직은 니들 데리고 갈 형편이 아니니까...잘 데리고 있어. 나중에 한번 갈께.

찬이 : ... 나중에 언제?

엄마 : ... 나중에. (착잡한 듯 담배를 깊게 뺏다)

#### 씬/44 구포역 역사 (N)

개찰구 앞에서 하품을 하며 멀리 기차가 들어오는 철로를 바라보는 역무원.  
이때 어슬렁대며 마음이가 역사 안으로 들어온다.

역무원 : 야 임마. 나가. 나가!! (다가와 내쫓으려는데)

마음이 : (역무원을 피해 개찰구 안으로 들어가 철로로 도망을 간다)

이때 마음을 향해 굉음을 내며 들어오는 열차.

경적을 울리며 마음을 향해 돌진해오는 열차. 마음이 간신히 열차를 피해 철로변으로 튕다.

마침내 정차하는 열차.

역무원, 열차 앞으로 뛰어와 이것저것 살펴보다...휴~ 한숨을 내쉬곤 출발신호를 보낸다.

마음이의 눈에 이제 막 출발하는 열차 옆으로 행선지가 보인다. “서울 - 부산”

마음이 : ... (가웃하는 표정에서)

인서트 - 열차에 오르는 찬이의 모습과...열차에 적혀져 있던 글씨...“서울 - 부산”

마음이...떨어지는 열차를 보다가 킁킁! 짓으며 철로 위를 따라 뛰기 시작한다.  
잠시 후...이미 마음이의 시선에서 사라진 기차.  
하지만 마음이는 기차가 사라진 어두운 철로를 따라 계속해서 달려간다...

#### 씬/45      엄마집 거실 / 침실 (N)

엄마 침대에 누워있는 찬이. 잠시 후, 엄마가 들어오면...슬며시 등을 돌려 눕는 찬이.  
엄마, 그런 찬이를 바라보다...침대 안으로 들어와 눕는다.

엄마     : ...자니?

찬이     : ...

엄마     : ...

찬이     : ...

엄마     : (나직하게) 엄마도...엄마 지금 이러는 거 나쁜 거 알아...그래도...지금 이대론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엄마한테 시간을 좀 줘...엄마도 많이 힘들어...나중에. 나중에 엄마가 좀 좋아지면...너희들 꼭 데리러 갈게.

등 돌린 찬이의 입술이 움찔거린다. 울음을 참는 찬이의 얼굴로 눈물이 흘러내린다.  
움찔대는 찬이의 등돌린 어깨를 보다...입술을 깨무는 엄마.  
그렇게...엄마와 찬이의 간격은 메워지지 않는다...

#### 씬/46      부산역 (N)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 기차를 점검하는 사람들과 간간히 불이 켜져 있는 부산역이다.  
길게 뻗어있는 길 위로는 아직 어둠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어느 순간...그 어둠 속으로 무엇인가가...지친 걸음걸이로 모습을 나타낸다.  
불이 켜져 있는 곳으로 혈떡이며 다가오는...마음이다.  
잠시 후, 찬이가 지나간 그길로...커다란 대합실을 지나 에스컬레이터 앞에 다다르는 마음이.  
낮선 도시를 바라보는 마음이의 눈에도 불안함이 담긴다.

#### 씬/47      엄마 집 실내 (D)

식탁위로 차려져 있는 아침 상...한쪽 구석에 하얀 봉투가 놓여져 있다.  
정장차림의 엄마가 우유를 따라 마시고 있다. 방에서 눈을 비비며 나오는 찬이.



엄마 : 엄마 일이 있어서 나가 봐야 하거든. 밥 먹고...이거 고모 갖다 드려. 나중에 엄마가 전화 한다 그래. (나간다)

찬이 : (멍하니 나가는 엄마를 보다 고개 떨군다)

엄마 : (나가려다 멈칫) ...찬이야.

찬이 : ... (눈을 들어 보면)

엄마 : ... 며칠 더 놀다 가고 싶으면 ... 그렇게 해.

찬이 : ... (무표정한 시선이다)

엄마 : ... (찬이의 시선을 피하며) 여기 집 내놔으니깐 다음엔 와도 엄마 없을 거야. 엄마가 연락할게. (도망치듯 서둘러 나간다)

곧,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닫힌 문 밖에서 문에 기대 고개를 떨구는 엄마.  
 엄마의 집엔 찬이 혼자만이 자리한다.  
 찬이의 눈으로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하얀 봉투가 보인다.

잠시 후, 식탁 위에 놓여진, 열려진 소이의 가방 옆으로... 소이가 썼던 '오늘 잘한 일... 잘못된 일'을 적은 종자들이 널려져 있다.  
 식탁에 앉아 한 장 한 장 보며... 정성껏 계산을 하는 찬이.  
 '오빠 심부름 + 500원. 밥 잘 먹어슴 + 300원.... 오줌 조금 싸슴 - 100원 ...'  
 계산을 하는 종이 위로 숫자들이 더해지고 빼진다.  
 그리고 마침내... 계산을 끝내는 찬이.  
 엄마가 놓고 간 하얀 봉투에서 만원짜리를 한 장 꺼내 놓고... 소이 가방에서 샴푸통을 꺼내 연다. 안으로 보이는 소이의 유골가루.

찬이 : 미안해... 얘기 할 수가 없었어... 이거 엄마가 주는 거야. 너 착한 일 많이 했다고...

찬이 만원짜리를 통 안에 넣고... 다시 책가방에 샴푸통을 넣는다.  
 책가방을 메고 일어서는 찬이. 현관 앞으로 가다... 멈칫 뒤를 바라본다.

찬이 : ... (표정에서) - (F.O)

## 썸/48 버스 안 (D)

(F.I) - 부산시내를 달리는 시내버스 안. 차창에 기대 앉아 낮선 도시를 바라보는 찬이의 눈에 두려움이 어린다. 썸 없이 내리고 타는 사람들...

시내를 달리던 버스가 어느새 바닷가 해안도로를 달린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가 보인다.  
 바다를 바라보는 찬이의 눈엔... 아무런 표정도 없다.

다시 버스는 부산시내로 접어들다... 차창에 기대 꾸벅이며 즐고 있는 찬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무릎 위로 빠르게 놓여지는 엽서가 보인다.

오마이 : (OFF) 아줌마 아저씨 모두 죄송합니다!!

졸다가...오마이의 소리에 번쩍 눈을 뜨는 찬이.

찬이의 눈으로 오마이와 그 옆에 붙어서 오마이를 꼭 붙들고 있는 씨땡이 보인다.

찬이 : !!! (부산 역에서 부딪혔던 씨땡을 기억해낸다)

오마이 : 저희는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는 돈벌러 부산으로 가셨지만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다고 울어대는 동생이 가없어서 부산에 왔지만, 엄마는 찾을 길이 없고 춥고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찬이의 눈에, 오마이 옆에 딱 붙어서 징징대며 눈물을 닦는 씨땡이 보인다.

씨땡을 보는 찬이의 눈빛이 흔들리면서...씨땡의 얼굴 위로 소이의 얼굴이 겹쳐진다.

오마이 : 제발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넙죽 인사하고, 양 옆으로 갈라져서 승객들 무릎에 놓인 엽서를 한 장씩 줍는 씨땡과 오마이. 찬이는 계속해서 그런 씨땡의 모습을 눈으로 쫓는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눈을 감은 채 돈을 주지 않는다. 마침내 찬이 옆으로 다가오는 씨땡.

씨땡 찬이 무릎 위에서 엽서를 주워 지나치는데...순간 씨땡의 팔을 잡는 찬이.

씨땡 : !!! (찬이를 보면)

찬이 : ... (천원짜리를 내민다)

씨땡 : ...

씨땡, 티끌다는 표정으로 찬이를 바라보다 돈을 낚아채곤...다른 승객에게 간다.

그런 씨땡을 계속 바라보는 찬이...

씨땡도, 엽서를 주우며...그런 찬이를 계속 흘끔댄다.

어울리지 않는 여자아이 가방에...남루한 옷 차림...시골아이 같은 찬이의 모습을 훑는 씨땡의 눈매가 매섭다.

썸/49 부산역 광장 (D)

광장엔 많은 사람들이 자리하고...또 오가고 있다.

찬이를 찾아...사람들 틈을 오가는 마음이의 눈에 낯선 도시에 놓인 불안함이 엿보인다.

그런 마음이를 돌아보는 많은 사람들...덩치 큰 개라 관심을 많이 받는다.

여중생들은 예쁘다고 하고...남자아이들은 다가와 만져보려 하고...

먹을 것을 내밀며 이리 오라고 어르는 사람들도 보인다.

하지만 잔뜩 겁을 먹은 눈으로 사람들에게 결을 주지 않는 마음이....

이때, 찬이와 씨땡이 탄 버스가 부산역 광장 앞길로 들어온다.  
그리고 어느 한 순간...찬이가 탄 버스와, 광장을 헤매는 마음이가 서로 엇갈린다.  
차창 안, 찬이 너머로 보이는 마음이...그렇게 지나쳐 버리는 버스...  
마음이는 멀리 사라지는 버스들을 바라보다...역 광장 한 쪽에 지친 몸을 웅크린다.

## 씬/50 부산역 인근 패스트푸드점 (D)

엄마 아빠와 앉아 햄버거를 먹는 아이들...놀이방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보인다.  
창문 밖에서 그런 아이들을 부럽게 바라보는 찬이.  
햄버거를 양껏 베어무는 아이를 보며, 배가 고프듯 입술에 침을 묻힌다.

씨땡 : (OFF) 먹고 싶냐?  
찬이 : (놀라 돌아보다 씨땡을 발견한다) !!!  
씨땡 : 이런 씨땡! 돈도 없는데!! (찬이의 다리를 걷어찬다)  
찬이 : 아!! (아파서 찢찢매는 모습에서)

같은 가게. 햄버거 세트를 놓고 부지런히 먹고 있는 오마이와 씨땡이 보인다.

찬이 : ... (눈치를 보는데)  
씨땡 : 먹어. 오늘은 많이 벌어서 좀 먹어도 돼. (햄버거 하나 내민다)  
찬이 : ... (햄버거 받아 물며) 니들 엄마 찾아서 왔니?  
오마이 : (뭐? 하는 표정으로 보면)  
씨땡 : 엄마는 찾아서 뭐하는데? 우리 둘 다 엄마 없어. 난 엄마 잃어 버렸고. 앤 고아원  
에서 나왔어.  
찬이 : ??? 둘이...오빠 동생 아니야?  
씨땡 : 씨땡...장사 하루 이틀 하나... (찬이 보곤 비웃듯 웃는다)  
찬이 : ... (얼떨떨한 표정인데)  
씨땡 : (주위를 보며) 재네들은 엄마 아빠가 다 사주지. 우리 우리가 벌어서 먹어. 뭐해?  
안 먹어?  
찬이 : ... 너 몇 살이니?  
오마이 : 앤 9살. 난 10살. (우걱우걱 먹는다)  
찬이 : (씨땡보며) 난 11살인데.  
씨땡 : 이런 씨땡! 사회에 나오면 10살은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야. 알어?  
오마이 : 맞아. 우리 형들이 그랬어. (부지런히 먹는다)  
찬이 : ... (얼떨떨한 표정인데)  
씨땡 : 너 집 나왔지?  
찬이 : (씨땡 보면)  
씨땡 : 갈 데 없으면 같이 갈래? 우리 다 같이 살어....(표정 살핀다)  
찬이 : !!!

이때, 창 밖으로 어른대는 형1.2의 모습이 보인다.

썸/51      엄마집 실내 (N)

어두운 실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며 술에 취한 엄마가 들어온다.

엄마     : ... 찬이야. 찬이 없니?

비틀대며 들어와 불을 켜다.

식탁에 그대로 놓여있는 아침 밥. 그 옆으로 하얀봉투가 그대로 보인다.

엄마     : ... (입술을 잘근 깨물다 방으로 가려고 돌아서는데...) !!!

엄마의 눈으로...거실 벽 가득 붙어있는...소이가 그린 엄마그림들이 보인다.

엄마     : !!!

떡떡한 가슴으로 그림을 보다...쇼파에 웅크리고 앉아...두 손에 머리를 묻는다.

썸/52      두목 집 마당 (N)

부산역 주변에 위치한...허름하지만 규모가 있는 2층짜리 양옥집.

마당에 둘러앉은 찬이.씨댕.오마이와 몇몇 아이들. 형1이 고기를 굽고 있다.

두목     : (세퍼트 몸 쓸어주며) 찬이라고 했나?

찬이     : ...네. (눈치본다)

두목     : 참말로 잘 왔데이. 내가 밖에 돌아댕기다보몬 니들 같이 갈 곳 없어서 헤매는 아  
들 억수로 많지. 내 그 아들 보면서 무신 생각 하는지 아나? 즈기즈기 다 내 새  
끼같은 놈들인데 내가 다 안아주고 닦아주지 몬하는구나...가슴을 치고 내 탓을  
한다. 근데, 내가 또 하늘의 깊은 뜻을 어케 아는 줄 아나? 니같이! 니가 어케 알  
고 우리 사랑의 집을 비 오는 날 참새새끼 방앗간 기들어 오듯이 니 발로 찾아 왔  
능가 말이다! 이기는 하늘의 뜻이거던. 내 이라몬 참말로 니 내치지 몬한다. 니 내  
맘 알재?

찬이     : ...(뭘 말인지...) 네.

두목     : 우쨌든 오늘은 우리 사랑의 집에 새 식구도 오고...기쁜날이대이. 많어들 묵그라.  
니들 돼지고기 좋은 거 알재? 텔레비에 다 나온다. 묵어. 간만이대이.

오마이   : (신나서 우걱우걱 먹는데)

두목     : 야야 오마이!

오마이   : (돼지고기 한입가득 넣고 먹다가 킁!하고 본다)

두목 : 넌 좀 슬슬 목그라. 내 고기 아까워 이러나? 이기 이기 다 콜레스테롤 덩어리야!  
 니같이 똥똥한 놈들은 이기이기 다 독이라 독. 알았나?  
 오마이 : (찢끔해서) 네...  
 두목 : 목그라 찬이야.  
 찬이 : ... (고기 먹으면)  
 두목 : 아 씨발...니 목는 거 보니까 내 배가 다 부르네. 참말로 썩하네...그래 목으라. 목  
 어. 씨땡 니도 목고. 니들도 많이들 목으래이. 목어 목어.

이때 고기를 굽던 형1, 비계덩어리를 베키 앞에 던져준다.

두목 : !!! (떨어진 비계덩어리를 주워 보며) ... 형아야 니 이리 좀 와보래이.  
 형1 : 네? (두목 옆으로 오면)  
 두목 : (다짜고짜 배를 힘껏 걷어찬다) 야 이 개만도 문한 새끼야!! 니 시방 이걸 누구  
 먹으라고 준거고?  
 형1 : (배 잡고 넘어져 아파한다) 베 베키...  
 두목 : 베키? 참말로 야 목으라고 준기네. 이 줄도 모르는 새끼가!!

넘어진 형1을 마구 발로 때린다. 겁에 질려서 그런 두목을 보는 찬이...아이들.

두목 : (씩씩대며 머리를 쓸어 올린다) 니들도 똑똑히 들으래이. 이 비계는 지방의 분자  
 가 너무 커가 개가 목으면 다리 쪽 혈관을 막아버릴 수 있는기다. 내 그래서 베  
 키한테 돼지고기 안주는기야. (후~ 형2를 보며) 형아야. 니 가서 소고기 한 근만  
 떼온나. 수입말고 한우로. 우리도 목었는데 개도 목어야지.  
 형2 : 네! (재빨리 튀어 나간다)  
 두목 : (베키 머리 만져주며) 내는 개를 개같이 보는 인간들이 제일 개같은기라. 더불어  
 사는 세상 아이가. 함께 사는 세상 말이다...(찬이를 보곤 씩 웃는다)

### 썸/53 두목 집 안채 (N)

공기총을 정성스레 닦고 있는 두목. 그 옆에 베키가 앉아있다.  
 우르르 들어와 2층 방으로 올라가는 아이들.  
 책가방을 멘 찬이. 뒤늦게 들어온다. 찬이, 올라가려는데...

두목 : (뒤에서 슬쩍 가방을 뺏으며) 이건 뭐꼬?  
 찬이 : (벌컥) 내놔요! (급하게 다시 뺏는다)  
 두목 : 이 자숙 봐라...(찬이 보며 피식 웃는다)  
 찬이 : 내꺼 아니예요. 내 동생 꺼란 말예요.  
 두목 : 니 동생도 있나?  
 찬이 : ...  
 두목 : 우쨌든, 이런 거 눈에 보이몬 아들 맘이 편치 않으니까 내한테 맡겨도.

찬이 : (강하게 고개를 젓는다)  
 두목 : 그럼 확 갖다 버린다?  
 찬이 : ...내 내가 버리고 올게요.  
 두목 : ...  
 찬이 : 진짜예요. 내가 버리고 올게요.

이때, 찬이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가는 형1.2. 두목 가볍게 손을 들어 제지한다.

두목 : ... 밤도 늦었는데 니 혼자 나가면 안 무섭겠나? ... 베키하고 같이 왔다와. (목줄을 내민다)  
 찬이 : !!! (목줄을 받으며 세퍼트를 보며)  
 베키 : (낮게 으르렁댄다)  
 두목 : 절대 줄을 놓지 말거래이. 토끼는 줄 알고 달려들어 모가지를 문다 안하나...

#### 씬/54 부산 역 앞 (N)

버스정류장. 들어오고 나가는 버스들. 버스를 타려고 뛰는 사람들이 보인다.  
 앞밭에 머리를 올려놓고 물끄러미...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하지만 수많은 버스 어느 곳에서도...찬이나 소이는 내리지 않는다.  
 힘들고...초체한...뚫주린 모습...마음이의 눈길이 슬퍼 보인다. (Dissolve)

배가 고프지 역전식당 주위를 얼씬대는 마음이.  
 저리 가라며 빗자루를 들고 나와 쫓는 식당주인.  
 마음이 쫓기고 쫓기다...어두운 구석. 쓰레기가 놓인 곳에서 킁킁대며 먹을 것을 찾는데...  
 이때, 반대편으로 소이의 가방을 댄 찬이가 베키의 목줄을 잡고 온다.

마음이 : !!! (본능적인 느낌에 돌아보다 찬이를 발견한다) !!!

마음이 좋아서 킁킁대며 어둠 속에서 뛰쳐나가려다...!!! 갑자기 몸을 낮추고 으르렁댄다.  
 찬이 뒤로 바싹 붙어서 따라오고 있는 베키. 베키도 뭔가 느낀 듯 으르렁댄다.  
 잠시 계단 앞에 서서 어둠 속의 무엇인가를 노려보며 으르렁대는 베키.  
 그리고 반대편 어둠 속에선...마음이가 찬이에게 가지 못하고 낮게 으르렁댄다.  
 하지만...아무 것도 모르는 찬이는 베키의 목줄을 잡고 지하철 계단을 내려간다.

#### 씬/55 지하철역 보관함 (N)

댄 아랫칸 보관함 문이 열리고...소이의 책가방이 들어온다.  
 책가방을 넣고 쪼그리고 앉아 가방을 만지작대는 찬이.  
 그 옆에서 찬이를 감시하고 있는 베키.

안타깝게 가방을 바라보는 찬이...

찬이 : 깜깜해도 부서워하지 마...오빠가 자주 올게...(눈빛이 흔들린다)

보관함의 문이 닫히고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그렇게...깜깜한 보관함 안에 놓여있는 소이의 책가방...만이 남는다.

썸/56 부산역 앞 / 지하철 보관함 (N)

시무룩한 표정의 찬이가 계단을 올라와 왔던 길을 거슬러 걸어간다.  
마음이 있는 쪽을 흘끔거리며 찬이의 뒤를 감시하듯 따라붙는 베키.  
그렇게 찬이와 베키가 시야에서 사라지면...어둠 속에 있던 마음이 나온다.  
지하철 계단 앞까지 걸어와, 찬이가 사라진 쪽을 바라보며 킁킁대는 마음이.  
그러다 문득 쿵쿵대며 지하철 계단 쪽을 본다. !!!

소이 : (OFF) 손 ... 손!! ... 앉아 ... 앉아!! ... 일어 서 ... 일어 서!!

냄새를 맡으며 지하철 계단 아래로 내려가는 마음이.

소이 : (OFF) 마음이 너! 자꾸 엄마 말 안 들으면 댘댘한다! 댘댘!

보관함 앞에서 쿵쿵 냄새를 맡다 소이가 들어있는 보관함에 머리를 비비고 혀로 핥으며 킁킁대는 마음이.

마음이...그렇게 소이가 있는 보관함에 한참동안 얼굴을 부벼대다...지친 몸을 웅크린다.  
이제야 찾은 작은 주인 앞에서...피곤한 몸을 누인 채 잠이 드는 마음이다...(F.O)

썸/57 두목집 앞 골목 (N)

찬이, 베키와 함께 걸어오다 멈춰 선다. 집 앞에 나와 있는 두목과 형1.2

찬이 : !!!

두목 : 그래 잘 다녀왔다.

찬이 : (끄덕인다)

두목 : 베키 니도 수고 많았대이. 이리 온나. (손 내미는데)

순간, 베키...무엇을 느낀 듯...두목 뒤로 보이는 어둠을 향해 으르렁댄다.

두목 : !!! 와 그라노? (몸을 돌려 어둠속을 보는데)

컹컹! 짖으며, 두목을 지나쳐 쏜살같이 어둠 속으로 달려가는 베키.

두목 : 베키야!! (놀라 본다)

## 썸/58 골목 일각 (N)

어두운 골목일각으로 동물과 베키의 싸움이 벌어진 듯, 날카로운 싸움 소리들이 들려온다.

베키를 따라 온 두목과 형1.2. 골목일각으로 들어서는데...

잠시 후...잠잠한 소리와 함께...죽은 너구리를 입에 문 베키가 어둠 속에서 나와 두목 앞에 피 묻은 너구리를 내려놓는다.

놀라는 두목과 형1.2...그 뒤로 겁에 질린 찬이도 보인다.

두목 : 뭐꼬? 너구리 새끼 아이가?

형1 : 요즘 시내로 야생동물들이 돌아다닌다더니 그건가 본데요?

두목 : 도대체 너구리 새끼를 으깨 느끼고 따라와 잡았노? 참말로 기가 막힌 놈 아이가.  
(베키 대견하게 안아주며) 요즘 사냥을 못 갔더니 우리 베키 몸이 근질거렸는가보다. (찬이를 본다) 봤재? 니 아까 내 말 안듣고 또깎으몬...이 너구리 새끼 꼴 날 뻔 한기라...맞재? 내 거짓말 안하재?

찬이 : ... (겁에 질려 베키의 피 묻은 입을 보는데)

두목 : 그래 니는 패않나? 어디 다친데 없나?

두목, 베키의 몸 여기저기 살피는데...목 부분에 너구리에게 물린 상처가 보인다.

두목 : 이게 뭐꼬? 물렸나 니? 우썸자고 물리노!! 이기 이기 덧나면 안될턴디...안되겠다. 들어가 약 바르재이. 내가 깨끗이 닦게 해주꼬고마.

두목, 베키를 안고 일어나다, 죽은 너구리를 발로 툭 친다.

두목 : 이거 가가 다듬어서 냉장고에 넣어 놓그라. 베키 몸보신 좀 시키게.

형1.2 : (살짝 인상쓰며) 네...

두목, 베키를 안고 “많이 아프진 않나? 쪼매만 참으래이” 호들갑 떨며 집으로 간다.

찬이, 형1.2의 눈치를 보다 집으로 가려는데...찬이의 어깨를 잡는 형1.

형1 : 첫날부터 절라 요란하다 너? 애기 좀 하자구....

찬이, 움찔하며 돌아보는 얼굴에 잔뜩 겁이 실려 있다.

## 썸/59 두목집 아이들 방 (N)



아이들이 자고 있는 방이다. 창문으로 들어온 달빛에 아이들이 자는 모습이 보인다.  
오마이는 잠결에 ‘오 마이 갓’하면서 이불을 걷어찬다.  
구석진 자리...찬이가 벽을 향해 옆으로 누운 채 잠들지 못하고 있다...  
여기저기 얻어터진 자국들...낮설고 불안하지만...찬이의 눈길은 무표정하다...(F.O)

#### 씬/60 지하철 안 (D)

(F.I) 흔들리는 전철에 서서 쭈뼛대는 찬이가 보인다. 얼굴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다.  
그런 찬이 옆에 딱 붙어서 어서 하라고 눈짓을 주는 씨댕. 사람들 뭐하는 건가 보는데...

찬이 : (더듬더듬 어설피게) 아 아줌마...아저씨...죄송합니다...  
씨댕 : (잘하라며 잡고 있던 팔을 꼬집는다)  
찬이 : 저희는 엄마를 찾아서 온...9살. 11살 된 남매입니다.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엄마는 돈 벌러 부산으로 가셨지만...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찬이 자신의 이야기다...잠시 말을 잇지 못한다)  
씨댕 : ... (그런 찬이를 올려다본다)  
찬이 : 고아가 아닌 고아로 살면서...밤마다 엄마가 보고 싶다고 울어대는 동생이...너무 가없어서...(감정이 솟구친다) 동생이 너무...너무 가없어서...엄마를 찾아 왔지만...  
엄마는...엄마는...엄마는...(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쓱 훔쳐낸다)

찬이의 행동에... “어머 재 진짜가봐...” “너무 가없다...” 수근대는 사람들이 보인다.

씨댕 : ... (그런 찬이를 바라보는 표정에서)

잠시 후, 열심히 인사를 하며 엽서와 돈을 챙기는 씨댕이 보인다.  
“기운 내” “쫓쫓 어린 것들이...” 하며 돈을 꺼내주는 사람들.

씨댕 : (한껏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열심히 받는다)

#### 씬/61 부산역 지하철 개찰구 / 지하철 보관함 (N)

아직 감정 정리가 안돼 시무룩한 찬이와, 흥분해서 얼굴이 달뜬 씨댕이 걸어온다.

씨댕 : 야 너 연기 깎 짜 잘한다? 진짜 장난 아니야. 너 어디서 놀았니?  
찬이 : ...  
씨댕 : 대빵이 진짜 좋아하겠다. 어쩜 우리 피자 사줄지도 몰라? 히히~ (웃는데)

묵묵히 지하철 보관함 쪽으로 걸어가는 찬이.

순간 보관함을 둘러싼 사람들이 웅성이는 모습이 보인다.

씨땡 : ??? 뭐지?

찬이 : !!!

혹시 소이에게 무슨 일이? 불안함이 엄습해온다. 사람들 틈을 파고드는 찬이와 씨땡.  
이때, 찬이의 눈으로...소이의 보관함 앞에서 이빨을 내밀고 으르렁대는 마음이가 보인다.

찬이 : !!! (이럴 리가 없다...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다)

마음을 잡으려고 목줄을 묶은 장대로 위협하는 119대원 1,2.  
마음이는 장대를 입으로 막아내느라 상처를 입어 입 주위에 피가 흐른다.

행인1 : 뭐야? 저 개?

상인 : 몰라요. 저기서 꼼짝을 안하니 무서워서 사람들이 다닐 수가 있나.

행인2 : 아 뭐해요! 빨리 좀 잡아 봐!!

사람들 틈에서 마음을 바라보는 찬이. 나서지 못하고 머뭇댄다.  
이때, 대원1이 장대로 마음을 찌르자, 장대를 입에 물고 버티는 마음이.  
순간 대원2의 목줄이 마음이의 목을 감아 채킨다.  
깨갱!! 하며 앞발이 들리는 마음이. 그틈을 타 대원1의 목줄도 마음이의 목을 감는다.

행인들 : 잡았다!! 끌고 가! 끌고 가!!

찬이 : ... (어찌할 줄 몰라 갈등한다)

양쪽에서 잡아 다니는 목줄에 꼼짝을 못하는 마음이. 엎드려서 버티다 대원들이 끄는대로  
깁깁대며 질질 끌려가다...소이의 보관함을 보며 슬프게 울어댄다.  
마음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보관함을 보는 찬이. 소이의 보관함이 점점 C.U 된다.  
점점 흔들리는 찬이의 표정. 마침내...

찬이 : (OFF) 놔요!! 내 개란 말예요!!

씨땡 : !!! (놀라 찬이를 본다)

행인들, 갑작스런 소리에 찬이를 보는데...마음이,!!! 찬이를 발견한다. 킁킁 짓지만 목줄에  
감겨 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목줄에 감긴 채...꼬리를 흔들며 찬이에게 가기 위해 발버둥치는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찬이에게 기어가 킁킁대며 배를 보이고 드러누워 찬이를 올려다본다.

이제야 찾은 주인...하지만...찬이의 표정은 차갑다.

썩/62 거리 (N)

앞 서 걷는 찬이를 행여나 놓칠세라 마음이가 따라붙고 있다.  
당황하고 복잡한 표정의 찬이는 그저 휘적휘적 앞 서 걸을 뿐이고...  
씨뎡은 따라오는 마음이를 흘깃대며 찬이 눈치를 살핀다.  
신호등 앞. 파란불이 깜빡이는 도로를 서둘러 건너가는 찬이와 씨뎡.  
마음이가 건너가려 할 때는 이미 빨간 불. 차들이 지나기 시작한다.  
멈칫하다... 멀어지는 찬이를 보곤 도로로 뛰어드는 마음이. 빵빵대는 차들.  
씨뎡 돌아보면...차들을 피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마음이.  
이때 클락션 소리와 끼이익~! 소리 들린다.  
찬이 돌아보면...가까스로 서는 오토바이에 머리를 부딪혀 넘어지는 마음이.

찬이 : !!!  
씨뎡 : 어? 야!! (마음이에게 뛰어간다)

사람들 넘어져있는 마음이에게 하나 둘 모여드는데...마음이가 곧 일어나 머리를 튄다.

찬이 : ...  
씨뎡 : (오토바이에게) 이런 씨뎡!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지!!

멀리 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찬이를 보는 마음이...잠시 찬이가 흐릿하게 보인다.  
하지만 곧 또 찬이게 쫓르르 다가가 눈치를 보는 마음이다.

씨뎡 : 야! 그러니까 너 혼자 그렇게 가면 어떡해? 애가 뭐 길을 아냐! 니 개라며?!!

찬이의 표정이 굳어지며 다시 앞서 걷는다. 여전히 마음이는 그 뒤를 따를 뿐이다.

### 씬/63 두목집 앞 (N)

집 앞 골목을 걸어오는 찬이와 씨뎡. 딱 떨어진 거리에서 따라오는 마음이가 보인다.  
집 앞에 다다라, 마음이를 흘깃 돌아보곤 집으로 들어가는 찬이.

씨뎡 : 야 재는?  
찬이 : (무시하고 들어간다)  
마음이 : !!! (멈칫 서서 찬이가 들어간 문만 바라본다)  
씨뎡 : (마음이를 돌아보며) 들어와 너도.  
마음이 : ... (하지만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씨뎡 : ... (표정) (Dissolve)

아무도 오가지 않는 집 앞 골목길.  
마음이가 집앞에 웅크리고 앉아 찬이가 들어간 문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다.

어두운 골목과 마음이의 몸 위로 내리기 시작하는 겨울비. 하지만 마음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때 문이 열리는 소리...!!! 마음이, 찬이인가 싶어 벌떡 일어난다. 하지만...형1.2 형1의 손에는 목줄이 들려있다. 움츠리는 마음이...마음이 뒤로 다가가는 형1의 모습에서...

#### 씬/64 두목 집 마당 (N)

철창 안에 낮게 엎드려 으르렁대는 베키의 모습이 위협적이다.  
마음이를 둘러싸고 웅성대는 아이들과 두목.

오마이 : 그럼 시골에 두고 온 개가 여기까지 널 찾아 왔단 말야? 오 마이 갓!

찬이 : ...

두목 : 거기 거기 개들의 본성인기라. 한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 내 그래서 개를 좋아해. 니들 돈 떼먹고 토끼는 개 봤나? 개들은 그딴 짓 안한다. 왜? 개니까. 인간들하곤 틀리니까! 세상 살면서 진짜 나쁜 놈들보고 개새끼라 카는데, 그건 개에 대한 모독인기라. 개가 뭘 잘못 했는데? 그럼 우리 베키가 개새끼가? 아니다. 우리 베키는 개님이다. 개님. 와? 내가 참말로 힘들 때 힘이 돼줬으니까! 그라가 니들이 시방 내하고 같이 지낼 수 있었던기라. 이기이기 다 우리 베키 덕이란 말이다...내말 무슨 말인지 알재?

아이들 : 네... (도대체 뭘 소린지...)

두목 : (마음이 보며) 조타. 니도 오늘부터 내하고 한식군기라. (만지려는데)

마음이 : (으르렁대며 물려고 한다)

두목 : (놀라 손 빼며) 이 개새끼가! 우따대고 이빨을 들이미노!! 성질 좇갈네 이 개새끼! 확 죽이빨라! (흥분한다)

아이들 : (긴장하는데)

두목 : ...(돌변하며) 아이다 아이다. 하모. 개라몬 이리 거칠어야재. 그래야 길들이는 맛도 있재. 잘했다...이제야 우리 베키한테 친구가 생겼고마. 좋나? (베키 보며)

베키 : (입가에 침을 흘리며...철창 안에서 으르렁댄다)

마음이 : ... (베키를 보는 눈이...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 씬/65 두목집 마당 (D)

인서트 - 두목집 외경.

깨갱대는 마음이의 소리가 들린다.

보호대를 찬 왼팔을 앞으로 밀며 몽둥이로 마음이를 툭툭 건드리는 두목.

열 받은 마음이가 두목의 왼팔을 물지만 보호대에 이빨이 낄 뿐이다.

그 틈을 노리고 마음이를 찌르고 툭툭 건드리며 독이 오르게 약 올리는 두목.

두목 : 덤비라. 덤비! 이래갖고 우리 베키 상대가 되겠나? (다가가면)

마음이 : (겹에 질려 뒷걸음친다)

이때, 일을 나가기 위해 나오는 찬이와 아이들.  
마음이 찬이를 보곤, 킁킁대며 도움을 청하는 눈길인데...

두목 : 이거 이거 완전 똥개로 키웠고마. 두고봐라. 내 이놈을 아주 진짜 개로 만들어 볼  
         팅께. 앞으로 이 놈아는 내 개다. 알긋나? (찬이 보면)  
찬이 : ... 맘대로 하세요. (획, 나가버린다)  
마음이 : !!! (원망스럽게 찬이가 나간 쪽을 본다)  
씨뎡 : ... (그런 찬이를 보는데)

다시 마음을 괴롭히는 두목. 나가려다..멈칫, 마음을 돌아보는 씨뎡. !!!

씨뎡 : 우리 오늘 개 하고 같이 나가면 안돼요?  
두목 : 뭐?  
씨뎡 :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거든요.  
두목 : 뭐라카노? 좋은 생각?  
씨뎡 : (고개를 힘차게 끄덕인다)

#### 씬/66     지하철 객차 안 (D)

마음이의 뒤에서 하네스를 잡고, 검은안경을 쓰고 있는 씨뎡. 옆으로 오마이 서있다.  
뒤쪽 연결통로에서 아이들과 마음을 못마땅한 눈으로 보고 있는 찬이.

오마이 : 아줌마...아저씨 형님...누나 모두 죄송합니다...저는 엄마 아빠 없이...(씨뎡을 보  
         며) 눈...먼 동생과 함께 사는 소년가장입니다...어려서 홍역을 심하게 앓고 난 후  
         앞을 못 보게 된 동생에게...마지막 희망인 안구이식수술비를 마련해 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씨뎡 : (털썩 주저앉아 마음을 꼭 끌어안곤...흑흑! 울어댄다)  
오마이 : (눈물을 훔치며) 제발 저희들의 바램을 꺾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면 대단  
         히 감사하겠습니다~  
씨뎡 : (마음을 끌어안으며, 더 큰 소리로 오버해서 흐느낀다)  
찬이 :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씨뎡과 오마이를 본다)  
마음이 : (멀뚱멀뚱한 표정에서)

#### 씬/67     두목집 안채 (N)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는 안채.

두목 : 이기이기 바로 경쟁력이라는기다. 남들이 생각 못하는 아이디어! 남들하고 똑같이

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 참말로 고맙다.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줘서 참말로 고맙대이! (오마이...씨텅....찬이...순으로 한번씩 안아주면)

형1.2 박수를 친다. 아이들 일어나 다같이 박수를 치기 시작한다.  
하지만, 찬이의 표정은 밝지가 않다.

## 씬/68 두목집 마당 (N)

강한 바람이 부는 스산한 밤이다. 한쪽 구석에서 웅크린 채 잠을 자고 있는 마음이.  
충혈된 눈으로 철창 안을 어슬렁대는 베키...마음을 향해 으르렁대며 침을 흘린다.

잠시 후...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귀를 쫑긋하고 일어나는 마음이.  
찬이가 마당 한쪽에 있는 화장실로 달려간다.  
불을 켜려고 하지만 망가졌는지 불은 들어오지 않는다. 횡! 바람 소리에 움찔하는 찬이.  
하지만 어쩔 수 없는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다.  
깨진 화장실 유리창으로 무섭게 들어오는 찬바람. 바람에 깨진 유리창이 흔들댄다.  
잔뜩 겁을 집어먹고 두리번대는 찬이의 모습에서... 툭! 스프르~ 열리는 화장실 문.

찬이 : !!! (헉! 놀라 보면)

마음이가 문을 열고는 화장실 앞에 쪼그리고 앉아 찬이를 뻔히 바라본다.

찬이 : 놀랐잖아 새끼야! 왜 문을 열고 지랄이야?! (하다 멈칫한다)

예전...어느 날 밤과 같은 상황...  
찬이...마음이...서로를 오래도록 바라본다.

찬이 : 꺼져! 새끼야! 꺼져!

마음이...슬그머니 찬이의 시선에서 사라지더니...  
잠시 후 다시 화장실 안으로 다시 고개를 빼꼼 들이민다.

찬이 : 이 새끼가! 꺼져! 꺼지란 말야!! (옆에 있던 청소도구를 던진다)

깡! 마음이...그제서야 풀이 죽어 찬이를 떠나 원래 있던 자리로 가 엎드린다.  
마음이 가고나면...씩씩대던 찬이...고개를 떨군다...그렇게 둘 사이로...바람이 분다.  
점점 심해지는 바람 소리...흔들리는 유리창 소리...계절이 바뀌고 있다... (F.O)

## 씬/69 지하철 연결통로 (D)

(F.I) 마음에게 채운 하네스를 잡고 있는 오마이. 아이들이 장사를 나가기 위해 모여있다.

형1 : 자 오늘도 열심히! 뺨치다 걸리면 죽는다. 알지? 나가 봐. (밖으로 나간다)

아이들 하나 둘씩 짹을 맞춰 나가는 분위기인데...

씨땡 : (오마이의 하네스를 뺏어 찬이에게 건넨다) 자 오늘은 니가 해.

찬이 : ?? (씨땡 보며)

씨땡 : 누군 뭐 안 쪽팔린 줄 아니? 너도 뭔가 좀 해야 될 거 아냐?

오마이 : 야, 그냥 나하고 하자. 내가 더 잘하잖아 영?

씨땡 : 넌 좀 빠져줄래? 지금 나 애하고 얘기하고 있잖아.

오마이 : ... (씨...)

씨땡 : (찬이보며) 어쨌든 오늘은 니가 해. 너도 밥값 해야지. 안 그래?

형1 : (밖에서 들어오며) 아직도 안나갔어? 빨리 안 나가!!

찬이 : ... (어쩔 수 없이 하네스를 잡는다)

마음이 : ... (꼬리를 흔든다)

## 씬/70 버스 안 (D)

마음이의 뒤를 따라 하네스를 잡고 더듬대며 올라타는 씨땡. 검은안경을 쓰고 있다.

출발하는 버스.

찬이, 마음을 잡고 있는 씨땡을 흘깃 보면...씨땡 잘하라고 찬이를 꼬집는다.

찬이 : (내키지 않는다) 저는 엄마 아빠 없이...(씨땡을 결눈질하며) 눈...먼 동생과 함께 사는 소년가장입니다...어려서 홍역을 심하게 앓고 난 후 앞을 못 보게 된 동생에게...마지막 희망인 수술비를 마련해 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씨땡 : (털썩 주저앉아 마음을 꼭 끌어안곤...흑흑! 울어댄다)

찬이 : ... (씨땡을 보며 낮게...후~ 하는 모습에서)

마음이와 씨땡을 가운데 놓고...돈을 받으러 다니는 찬이가 보인다.

마음을 꼭 안고 아무 것도 안 보인다는 듯 더듬대는 씨땡.

사람들...그런 씨땡을 보다 하나 둘 돈을 꺼내 주는데...

어느 순간, 동전을 놓치는 승객. 포르륵~ 500원짜리 동전이 버스 안을 굴러 씨땡 쪽으로 굴러간다. 아무 생각 없이 동전을 탁 잡는 씨땡. 순간...버스 안에 긴장감이 흐른다.

씨땡 : !!! (아차 싶어 보며)

찬이 : !!! (놀란 표정이다)

승객들..."재네들 뭐야? 눈 먼게 아니잖아?" 수근대기 시작한다.

씨땡 : ...이런 씨땡...

### 씬/71 거리 / 골목 / 큰 길 (D)

정류장에 와서 서는 버스. 문 열리면...“ 파출소에 세우라니까!” “재네들 잡어” 웅성이는 소리와 함께...동시에 튀어 나와 도망치는 찬이와 씨땡. 마음이가 그 뒤를 열심히 따라간다.

찬이 : 그러게 이딴 짓 하지 말자 그랬잖아!!

씨땡 : 야! 돈 보고 눈 안도는 사람 어딴냐!! 튀기나 해! 잡히면 아작이야!

순식간에 골목 안으로 도망가버리는 찬이와 씨땡.

마음이 열심히 쫓는데...골목을 따라 뛰던 어느 순간...갑자기 앞이 캄캄해진다.

깡깡대며 당황하는 마음이...제 자리를 빙빙돈다. 어느 틈에 사라진 찬이와 씨땡...

머리를 털며 앞이 보이지 않는 마음이...큰 길로 접어든다.

순간 끼익!하며 서는 차. 그 뒤를 따라오던 차가 급정거를 하고 클락션을 울려댄다.

놀라서 길 가운데로 도망가는 마음이.

반대편 차들이 급정거를 하고...순식간에 차들이 엉켜버린다.

오도가도 못하고 길 가운데서 서성이는 마음이...찬이를 잃어버렸다는 생각과...뽕뽕대는 클락션 소리에 잔뜩 겁에 질려있는 모습이다. 그런 마음이의 모습이 길게 보여진다...

### 씬/72 지하철 역 인근 거리 (D)

마음을 찾아 헤매는 찬이와 씨땡.

씨땡 : 아우 씨땡. 애는 또 어디 간 거야?

찬이 : ...

씨땡 : 야! 치사하게 너만 튀냐!! 마음을 데리고 와야 할 거 아냐!!

찬이 : ... (씨땡을 보며)

씨땡 : 주인은 너잖아!! 그럼 니가 챙겨야지!! 넌 왜 그렇게 마음을 싫어하냐! 너 찾아와서 고생하는데 불쌍하지도 않아!!

찬이 : ...

씨땡 찬이를 앞질러 나가 마음을 찾는다...

씨땡처럼 열심히 찾지는 않지만...두리번대는 찬이의 표정도 밝지는 않다.

이때, 저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 웅성이는 모습이 보인다. 킁킁! 개 짖는 소리.

!!! 찬이와 씨땡, 사람들에게 뛰어가 그 틈을 뚫고 들어가보면...

놀란 엄마의 품에 안긴 여자아이를 향해 가열차게 짚어대는 마음이 보인다.



“재 왜 저래?” “경찰 좀 불러와!!” 사람들 웅성이는데...

찬이의 눈에...여자아이가 메고 있는 책가방이 들어온다...소이와 가방과 똑같은 책가방이다..

씨댕 : 야 재 왜 저래? 저 가방 옛날에 니 가방하고 똑같은 거 아냐?

찬이 : !!! (멍한 눈으로...아이의 책가방과 짓어대는 마음을 본다)

### 씬/73 두목집 마당 (D)

깨갱대는 마음이의 비명소리가 들린다. 빗자루로 마음이를 두들겨 패는 찬이. 잔뜩 화가 나 있다. 맞는 이유도 모른 채, 깨갱대며 찬이를 올려보는 마음이. 씨댕이 말리고 나선다.

씨댕 : 야! 도대체 왜 그래! 왜 때리는데 왜?!!

찬이 : 비켜!!

씨댕 : (막아서서) 야, 애는 니 가방 훔쳐 가는 줄 알고 지키려고 한 건지도 모르잖아!

찬이 : 가방 얘기 하지 마! 비켜! 비키란 말야!! (씨댕을 밀쳐내고 마음이를 노려본다)

마음이 : (불쌍한 눈으로 찬이를 올려다본다)

찬이 : 개새끼! 왜 내 눈 앞에 나타나서 지랄이야!! 왜!! 왜!!! (빗자루를 휘두른다)

깨갱대는 마음이의 울음소리에서...(Dissolve)

다음날. 일을 나가기 위해 나오는 찬이와 씨댕...아이들...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마음이가...찬이를 보곤...술금술금 피하며 다른 곳으로 몸을 숨긴다.

찬이 : ... (복잡한 표정으로 나간다) (F.O)

### 씬/74 두목집 안채 (N)

(F.I) 다른 날. 마루에 쭉 늘어서 있는 아이들. 형1.2가 앞으로 나와 겁에 질려 서 있다.

침을 질질 흘리며 낮게 으르렁대는 베키. 베키의 침을 정성스레 닦아주는 두목이 보인다.

두목 : 이놈아야, 무슨 침을 이리 흘리노? 니 어디 아프나? 와? 이놈아들이 내 속상하게 하니까 니가 혼내줄라카나? 겁주는기가? 됐다. 아즉은 니 애 안 써도 된다.  
나중에...내가 말로 했는데 그때도 말 안 들으몬 그때 왕 달려 들어가 혼내주거래이.  
알겠재?

베키 : (경! 짓는데 쉰 목소리다)

형1.2 : (눈을 질끈 감는다)

두목 : 야야~ 목소리는 와 또 이리 쉬었노? 목 아프나?

두목, 베키의 목을 만져주는데 손에 금새 침이 흘러내린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두목 : 형아들아.

형1.2 : 네!!

두목 : 내는 말이다. 내 혼자 힘으로 야들 뒷바라지 하고 싶은 게 내 솔직한 심정인기라.  
근데 세상이 고로꼬름 돌아가 주지를 않아. 형아 니들도, 남들이 내보고 뭐라카는  
지 알재?

형1.2 : ...

두목 : 바보라카잖나 바보. 와 힘들게 아들하고 이리 사냐고. 하몬, 내가 야들을 버리나?  
남들은 그럴 수 있는지 몰라도 넌 그리 몬한다. 와?! 내한테 사명감이 있거던. 야  
들같이 불쌍한 아들...정말 남부럽지 않게 키워서! 이 나라의 좋은 일꾼 만들고!  
또! 내같이 불쌍한 인생 만들지 않겠다! 그런 사명감이 내겐 있는기라! (눈물 짙  
어내며) 니들도 내 맘 알재?

형1.2 : 네!!

두목 : 하몬 형아 니들이 나를 좀 도와 줘야재! 와 날마다 벌이가 쫄어드나 말이다! 와!!

아이들 : ... (눈치를 본다)

두목 : 내 치사하게 야들한테 이런 얘기 할 순 없잖나. 안 그러냐 이 새끼들아!!

두목 화를 팍 내면...베키 금새라도 달려들듯 킁킁 짚어댄다.

겁에 질려 눈을 질끈 감는 형1.2...아이들.

두목 : 니들도 알재? 베키 무서운 거. 아무리 그라도...내가 베키보고 니들 몰라 할 수는  
없는 거 아이가? 물면 죽는데, 내 우째 그 짓을 시키겠노. 하지만 말이다...내도 인  
간인기라...내 인내심을 시험치 말아도. 알긋나?

형1.2 : 네!!! (덜덜 떠는 모습이다)

## 썸/75 두목집 아이들 방 (N)

형1.2에게 두들겨 맞은 찬이와 아이들이 하나 둘 들어온다. 다들 풀이 죽는 모습이다.

그 중에는 아프고 무서워서 징징대는 아이의 모습도 보인다.

어두운 분위기...잠시 후 형1.2가 들어온다.

형1 : 뭐해 새끼들아! 빨리 퍼질러 자!!

아이들 움찔하며 이불 까는데...움직이지 않고 형1을 노려보는 찬이.

형1 : 아쭈 이 새끼봐라? (찬이에게 다가간다) 너 지금 나 야리냐?

찬이 :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

형1 : 눈 안 깔어? 눈 깔어 새끼야!! (찬이 머리 퍽 치면)

찬이 : (흔들렸다 다시 형1을 노려본다)

형2 : 골때리는 새끼네 이 새끼? 뭐 새끼야? 우리한테 뭐 불만있어? 엉? (하는데)

씨댕 : 사실! 요즘 우리가 옛날보다 많이 벌지 않아?

형1.2 : 뭐?

형1.2 씨뎡을 보다...씨뎡의 얘기에 동조하는 아이들의 눈빛을 느낀다. 당황하는 형1.2

형1 : 뭐 소리하는 거야 씨발...빨리 안자! 빨랑 퍼질러 자!!

아이들 서둘러 자리에 눕는다.

여전히...형1.2를 노려보는 찬이. 찬이를 보는 형1.2의 눈도 곱지가 않다.

짧은 시간,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형1.2의 모습에서... (F.O)

씬/76 지하철 연결통로 (N)

(F.I) 구석진 통로 한 구석. 형들과 아이들이 모이는 비밀장소다.

앵벌이 해 번 돈을 모두 형1에게 꺼내주고, 호주머니를 까보이는 아이들.

형1 : 수고들 했다. 찬이만 남고, 다들 한번만 더 뛰고 와.

찬이 : !!!

씨뎡 : 애는 왜? 나 애 없으면 일 못해.

오마이 : (좋아라) 야, 넌 나하고 하면 되잖아. 빨리 가자 응?

형1 : 갔다 와. 앤 할 일이 있으니까.

씨뎡 : ...뭐? (불안하게 찬이와 형1을 번갈아 본다)

오마이 : 빨리 가자. 빨리 와. (씨뎡을 끌고 가면)

씨뎡 : ... (오마이와 가면서 뭔가 불안한 듯 찬이를 자꾸 돌아본다)

찬이 : ...

형1 : (아이들 나가고 나면) 야. 이거 받아. (돈이 잔뜩 든 가방을 내민다)

찬이 : ??

형1 : 나 일이 있으니까, 이거 갖고 먼저 집으로 가.

찬이 : ... (돈 가방을 받는다)

형1 : 너 이거 잃어버리면 죽는다. 오늘 애들이 모은 돈 다야. 잘 가져가. 알았어?

찬이 : ... (가방 어깨에 사선으로 가방 메고 가면...)

형1 : (어디론가 핸드폰을 건다) 어...지금 보냈다. (전화 끊으며 씩 미소를 짓는다)

씬/77 1호선 서면역 플랫폼 (D)

전철을 갈아타기 위해 사람들로 북적이는 플랫폼이다.

돈 가방을 꼭 쥐고 사람들 틈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찬이.

멀리서 그런 찬이를 숨어서 바라보는 형2가 보인다.

신평차량기지행 열차가 들어온다는 안내방송이 나가고 사람들은 앞으로 밀리기 시작한다.

술술 찬이에게 다가가는 형2. 곧이어 1호선 열차가 들어와 선다.

사람들이 내리고...먼저 타려고 사람들이 앞으로 밀리면서 서로 부딪히는 혼돈의 시간.  
찬이...사람들에게 떠밀려 열차에 오르는 순간...어디선가 손이 꼭 들어오더니 찬이가 맨 가방을 툭 잘라 버린다. 그리고 사라지는 뒷모습.  
열차의 문이 닫히고 출발하는 열차. 찬이, 그제서야 어깨에 맨 가방이 없다는 것을 알아챈다.

찬이 : !!! 비켜요!! 비켜봐요!!

사람들을 밀치고 주위를 살피지만...이미 돈 가방은 보이지 않는다.

찬이 : !!!

찬이의 잔뜩 겁먹은 표정 위로...어둡고 긴 터널을 달려가는 열차가 보여진다.

#### 썸/78 두목 집 안채 / 마당 (N)

두목의 발길에 배를 맞고 넘어지는 찬이. 겁에 질려 벌벌 떠는 아이들이 보인다.

두목 : 아 씨발, 그 돈이 우양 돈인데 그걸 잃어 버리노?!

찬이 : ...

두목 : (벌컥) 와 말이 없나! 와 나를 나쁜 사람 만드나 말이다!! (손을 들어 때리려는데)

씨댁 : (재빨리 막아서며) 잘못 했어요! 다음부터 안그럴게요!! (씩씩 빈다)

두목 : 넌 빠지라 마!! (머리를 잡고 확 밀어내면)

씨댁 : (나가떨어진다)

찬이 : (서둘러 씨댁을 안으며) 왜 애한테 그래요!! 앤 잘못 없잖아요!!

오마이 : (눈 질끈 감는다)

두목 : 니 시방 나한테 앵기는기가 영? (찬이 툭툭친다)

찬이 : ... (멀리다) 애들 시켜서 이려는 거...나쁜 일이에요.

일동 : !!! (놀라서 찬이를 본다)

두목 : 뭐라? 나쁜 일? 하! 하! 하 ! 하 !하! (위협적으로 찬이에게 다가간다) 그라가? 내가 나쁜 일 시켰으몬? 우짤긴테? 경찰에 신고라도 할끼가? 잉?

찬이 : (겁에 질려 문 쪽으로 뒷걸음친다)

두목 : 신고라도 할끼가 말이다!! (발길질 하면)

찬이 문에 부딪히면서 마당으로 나가떨어진다.

마음이 : !!! (한쪽 구석에 묶여 있다가 찬이를 보고는 일어나 쾅쾅 짚어댄다)

씩씩대며 마당으로 나오는 두목. 아이들과 형1.2 겁에 질려서 나와 본다.

두목 : (머리 쓸어 올리며) 야 이 시뻡아. 나가 니 끌고 왔나? 니가 좋다고 왔재 나가 니 끌고 왔나!!

마음이 : (미친 듯이 짓어댄다)

두목 : 오갈 데 없는 아들 데려다 먹여 살려노니까 내보고 나쁜 놈이라고? (앉아서 쓰러진 찬이 얼굴 잡아들며) 니 한번 얘기해봐라. 오갈 데 없는 니들 데려다 먹여주고 재워준 내가 나쁜 놈이냐, 그거보고 나쁘다카는 니가 나쁜 놈이냐 영?

마음이 : (목줄을 끊고 찬이에게 가려고 몸부림치며 짓어댄다)

두목 : (찬이 얼굴 잡고) 퍼뜩 야그해봐라. 내가 나쁜 놈이냐, 니가 나쁜 놈이냐?

찬이 : ... (지지 않고 두목을 본다) 우린 잘못 없어요...갈 데 없어서 여기 있는 게 우리 잘못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살고 싶어 사는 거 아니잖아요...

두목 : !!! (할 말을 잃는다)

잠시의 침묵...씨땡...오마이...아이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다.

마음이 : (두목을 향해 미친 듯이 짓어댄다)

두목 : 조용히 안하나! (돌멩이 집어 마음이에게 던진다)

마음이 : (그래도 지지 않고 짓어댄다)

두목 : 이 개새끼가!!

두목 눈이 뒤집혀 몽둥이를 들고 마음이를 때리려고 한다. 그러다 멈칫하는 두목.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어린다.

두목 : 똑똑히 들으래이...주인한테 대드는 개는 개가 아녀...(찬이...마음이를 본다) (F.O)

썸/79 두목 집 마당 (D)

인서트 - 두목집 외경 (D)

언제 무슨 일이 있었나싶게 고요한 분위기의 아침이다.

현관문이 열리고...간만에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아이들이 외출을 위해 나온다.

마당 한 켠에서 찬이를 발견하곤 별떡 일어나 꼬리를 흔드는 마음이.

찬이 : ... (마음이를 본다)

이때 안채에서 마당으로 나오는 두목과 형1.2.

두목은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과장해서 밝은 척을 한다.

두목 : 야야~ 우리 아들 좀 봐라. 이래 입혀 노니까 연예인 저리가라다. 우예 이렇게 잘 생기고 예쁜 아들이 있잖나. 안 그러냐?

형1.2 : (눈치보며 네네 한다)

두목 : 우리 찬이 잘 잤나?  
 찬이 : ... (시선을 맞추지 않는다)  
 두목 : 사내자숙이 와 그리 꿈해있노? 오늘은 나가가 니들 하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오레이. 자 받그라. (아이들에게 만원씩 나누어 준다)  
 아이들 : (돈을 받으며 눈이 휘둥그래진다)  
 두목 : 자 우리 찬이는 형아니까...(2만원 준다) 받아라 마. (찬이 주머니에 넣어준다)  
 뭐하노? 퍼뜩 나가 놀고 오잖고.  
 아이들 : (찬이를 뺨히 본다)  
 찬이 : ... (마음을 흘깃 보다가...나가면)  
 아이들 : (좋아라 찬이를 따라 나간다)  
 마음이 : (나가는 찬이를 바라보는 눈길이 슬퍼보인다)  
 두목 : (아이들 다 나가면...침을 튈 뻔한다) 살다 살다 내 별 드러본 꼴을 다 본다. 이젠  
 아들 똥꼬까지 긁어 줘야 하나. 이기보고 민주주의라 카는가 본데, 이기 이기 나  
 라 망치는 기다...개기면 조져야재. (침을 튈 뻔으며 마음을 본다) 안 그러나?  
 마음이 : ... (으르렁대며 두목을 본다)  
 두목 : ...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짓는다)

## 씬/80 통도 환타지아 (D)

현란하게 돌아가는 놀이기구들. 여기저기서 번쩍이는 조명과 불빛이 화려하다.  
 줄지에 별천지에 놓인 아이들. 놀란 입을 다물지 못한다. 서로 마주보다...

아이들 : 오 마이 갓!!!

이때, 고적대의 연주 소리가 들리고, 뒤를 이어 가장무도회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아이들 좋아서 소리를 지르며 각자 가고 싶은 데로 혼이 빠져서 달려간다.

찬이...낮선 풍경에 두리번대며 걸어가다...

예쁜 드레스를 파는 가게 앞에서 넋 나간 듯 드레스를 보고 있는 씨땡을 본다.

찬이 : ...  
 씨땡 : (너무 갖고 싶은 듯 창문에 손을 대고 드레스를 만져 보다...행복한 표정이 된다)  
 찬이 : (OFF) 예쁘겠다. 니가 입으면.  
 씨땡 : !!! (놀라 돌아보면 찬이가 서있다)  
 찬이 : ...  
 씨땡 : ... (부끄러운 듯 배시시 웃다) 나 나중에 엄마 만나면 꼭 해달라고 할게 있다?  
 찬이 : ...??  
 씨땡 : 이 드레스...사달라고 할거야.  
 찬이 : (피식 웃는다)  
 씨땡 : 이걸 입으면...사람들이 날 몰라볼테니까...이걸 입으면...아무도 내가 지하철에서  
 구걸하던 애라고 생각하지 않을테니까...(창문에 손을 대고 드레스 만진다)

찬이 : !!! (씨땡을 본다...점차 가슴이 멍멍해온다)

예쁜 벤치에 앉아있는 찬이와 씨땡. 약간 어색한 분위기다.

씨땡 : 근데 넌 마음이를 왜 그렇게 미워하니? 마음이는 너 무지 좋아하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널 찾아 온 거 아냐?

찬이 : ...

씨땡 : 난 잘해줄 거 같은데...누가 나 좋아해주면...

찬이 : ...

씨땡 : ... (주머니에 손을 넣고 머뭇머뭇 대다) ... 이거 ... (뭔가 내민다)

찬이 : ??? 뭔데?

씨땡 : (부끄러운 듯 찬이 옆에 툭 던져 놓는다)

찬이 : ... (보면...안티푸라민이다)

씨땡 : 아픈데 바르면 빨리 난대...

찬이 : ...고 고맙다.

씨땡 : ...너 재미는 하나도 없는데...멋있는 건 좀 있더라...(얼굴이 빨개진다)

찬이 : ... (어색해서 괜히 다른 데 보다) 저기...

씨땡 : 뭐? (보면)

찬이 : 저 쓰레기통...되게 크다...그치?

씨땡 : 어...크네.

찬이 : ...

씨땡 : ...

잠시의 침묵이 흐르다...킁킁대기 시작하는 씨땡...찬이도 멍쩍은지 피식 웃는다.

잠시 후...환타지아스페셜(청룡열차)를 타는 찬이와 씨땡. 오마이와 아이들이 보인다.

서서히 올라가다 급속도로 아래로 내려가며 회전하는 놀이기구.

긴장해 있던 아이들의 입에서 즐거운 함성이 터져 나온다.

일동 : 오~~ 마이~~ 갓 ~~~ !!!

## 썸/81 두목 집 마당 (D)

깨갱대는 비명소리와 함께...철창으로 끌려가는 마음이가 보인다.

양쪽에서 목줄을 걸고 끌고 가는 형1,2. 비릿하게 웃는 두목.

철창 안으로 총혈 된 눈의 베키가 보인다. 침을 뚝뚝 흘리며 미친 듯 짓어대고 난리가 났다.

그런 베키를 보곤 위험을 직감하는 마음이. 어떻게든 안 끌려가려고 뒷걸음치며 버티지만...

결국 철창의 문이 열리고...힘없이 밀려 들어간다. 철컹! 하고 닫히는 철창.

베키, 눈이 뒤집혀 마음이의 주위를 돌며 으르렁댄다. 이미 평범한 개의 모습이 아니다.

두목 : 베키야. 천천히 갖고 놀그라. 장난감은 오래 갖고 놀아야 정이 붙는 법이대이..

(웃는 두목의 눈으로 광기가 번득인다)

썬/82 통도 환타지아 / 두목집 마당 (D)

즐겁게 노는 아이들의 이미지와...마음이와 베키의 혈투 이미지가...소리 없이 교차된다.

- 회전목마를 타면서 서로 손을 흔들고 말 위로 올라가 장난을 치는 찬이와 아이들.
- 마음이의 주위를 돌던 베키가 마음이를 향해 달려들면...마음이 아슬아슬하게 공격을 피하곤 베키의 주위를 빙빙 돈다.
- 입가에 덕지덕지 짜장을 묻히며, 맛나게 짜장면을 먹는 찬이와 아이들.
- 베키 다시 공격을 하지만...아슬아슬하게 피하는 마음이. 이미 정신이 나간 베키는 미친 듯 달려들고 마음이는 피하는데 급급한 모습이다. 물리면 안된다...아슬아슬한 순간들... 하지만 마침내 베키는 마음이의 목을 문다. 목이 물린 채 꼼짝을 못하던 마음이...간신히 몸을 빼내면...마음이의 목으로 핏물이 들기 시작한다.
- 피를 보자 조금 더 조금 더를 주문하는 두목의 눈이 이미 광기에 젖어있다.
- 바이킹을 타고 연호하는 아이들. 찬이와 씨뎡은 서로 반대편에 타고 서로 무서워서 소리를 치는 상대편을 보며 즐거워한다.
- 방법을 바꿔 베키를 향해 으르렁대며 공격하는 마음이. 순간 마음이 눈 앞이 까맣게 변하며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 머리를 털고...앞발로 눈을 비벼대며 당황하는 마음이...기회를 놓치지 않고 달려들어 다시 마음이의 목을 물어뜯는 베키. 마음이 쓰러져서 바둥대지만 빠져 나올 수가 없다. 킁킁대는 마음이의 모습에서...
- 프리스윙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 흔들리는 찬이와 아이들. 아아아악! 아이들의 즐거운 표정이 보이는 중에...
- 목을 물린 채 혈떡이는 마음이의 눈이 자꾸 감긴다...간간히 바둥대는 모습에서...

썬/83 부산 역 앞 (N)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는 시간. 봉고차가 한대 달려와 그나마 외진 곳에 와서 멈추어 선다. 잠시 후...봉고차가 떠나고 나면...쓰레기 더미 위에 버려져있는 마음이. 가늘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마음이의 배...어느 순간 마음이의 눈이 가늘게 떠진다. 마음이의 시선에서 흐릿하게 보이는 지하철 계단...킁킁대는 마음이의 눈길에서...

썬/84 두목 집 마당 (N)

재밌게 놀다 온 아이들이 현관을 지나 안채로 들어간다.



찬이와 씨댕, 안으로 들어가려는데...마음이 묶여있던 곳에 마음이 없다.

찬이.씨댕: ??? ...

#### 씬/85 두목 집 안채 (N)

쇼파에 앉아 마른안주를 놓고 맥주를 마시고 있는 형1.2가 보인다.

‘다녀왔습니다’ 인사하고 2층으로 올라가는 아이들. 찬이와 씨댕이 들어온다.

형1 : (찬이 흘기며) 세상 좋아졌다. 앵벌이가 휴가도 받고.

씨댕 : (찬이를 툭 치며 같이 올라가려는데)

형1 : (들으라는 듯) 이야 세퍼트가 무섭긴 진짜 무섭대. 한번 무니까 농지를 앓잖아.

형2 : 근데 그 똥개 새끼도 처음엔 좀 버티던데?

찬이 : !!!

씨댕 : !!! (멈칫. 귀를 기울인다)

형1 : 버티기는? 목 딱 물리니까 꿈쩍도 못하더만. 내가 봤을 때 저 베키 새끼 미쳤어. 목 물고 늘어질 때 눈깔 봤지? 눈깔이 확 뒤집혔잖아.

형2 : 그런 거하고 붙었으니 살 수가 없지. 마지막에 숨 쉴뎁거릴 땐 나도 좀 불쌍하더라. 사람도 죽을 때 그럴까?

찬이 : ... (돌아보며) 그래서...어떻게 했어요?

형1 : 뭐?

찬이 : 그...개요.

형1 : 어떡하긴 임마. 치위 가라고 눈에 잘 띄는 데다 갖다 버렸다 왜? (맥주 마신다)

찬이 : (다시 올라가려다) ... 어디다 버렸는데요?

씨댕 : ... (찬이를 본다)

#### 씬/86 부산역 앞 (N)

어둠이 내린 거리. 어디선가 헉헉!대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달려온다...찬이다.

두리번대며 마음을 찾는 찬이. 하지만 마음이는 보이지 않는다.

이윽고...마음이 버려졌던...쓰레기 더미에 다다른 찬이. 하지만 이곳에도 마음이는 없다...

찬이...고개를 떨군다. 힘없이 왔던 길을 터덜대며 걸어간다...

찬이 : !!! (문득 뒤를 돌아보면...소이가 놓여있는 지하철 계단이 보인다) ...

#### 씬/87 지하철 보관함 (N)

인적이 끊어진 지하철...계단을 망설이며 내려오는 찬이의 얼굴 위로...

찬이 : (OFF)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 죽어! 나가 죽어! 이 개새끼야!!  
찬이 : (OFF) 내가 끌고 온 게 아니에요. 지가 따라 온 거지...  
찬이 : (OFF) 꺼져! 꺼지란 말 안 들려!!!

찬이...두근대는 가슴으로...계단을 내려와...보관함이 보이는 곳에 다다른다.

찬이 : !!!

소이가 있는 보관함 앞에서 축 늘어져 쓰러져 있는 상처투성이의 마음이가 보인다.  
...간신히 숨을 헐떡이고 있는 마음이...

찬이 : !!!

그 자리에 서서 헐떡이는 마음이를 바라보는 찬이의 눈빛이 흔들린다.  
이때 찬이를 발견하곤...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어떻게든 일어나 보려고 하는 마음이...  
하지만 끝내 일어서지 못한다.

마음이 : (깡깡대며 애타게 찬이를 보는데)  
찬이 : ... (다가가지 않는다)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는...둘간의 거리...공간...찬이와 마음이의 눈빛만이 오간다.  
어느 순간, 입술을 질근 깨우는 찬이...마음을 뒤로하고 걸어간다.  
그 뒤로...떨어지는 찬이를 보며 깡깡대는 마음이...마음이의 눈이...촉촉이 젖어든다...(F.O)

#### 썸/88 두목 집 앞 골목 (N)

(F.I) 땅에 질질 끌려오는 쇠파이프가 보인다...쇠파이프를 끌며 두목 집을 향해 걷는 찬이.  
두 눈은 분노로 불타있다. 문 앞에 이르러 들어가는 찬이...

#### 썸/89 두목 집 안채 / 마당 (N)

안채. 철창을 부수는 소리와 베키가 짓어대는 소리가 요란하다.  
놀라, 방에서...이층에서 뛰어 나오는 두목. 형1.2. 아이들...

두목 : 뭐야? 언 놈이고?!!

베키의 철창에 걸린 자물쇠를 쇠파이프로 두들겨 부수다...철창을 부수는 찬이.  
베키는 눈이 뒤집혀 찬이를 향해 험하게 짓어대고 난리다. 베키의 입가에 흐르는 침...

눈이 뒤집혀 흰자위가 살벌하게 느껴진다. 철창을 긁는 쇠파이프 소리...  
이때 뛰어나오는 두목과 형1,2. 그리고 아이들.  
씨댕,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찬이를 보고는 놀란다.

두목 : 니 시방 모하는기고!! 그만 못 두나!! (다가가는데)  
찬이 : 가까이 오지 마!! (쇠파이프를 휘두른다)  
두목 : (멈칫 선다) 이 자숙이..  
찬이 : 가까이 오지 마! 다 죽어버릴 거야! 다 죽어버릴거야!!  
씨댕 : !!!

정신없이 철창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찬이. बे키 흥분해서 발광하며 짖어댄다.

두목 : 그만 안 두나!! 감히 누구한테 지랄이고!!  
찬이 : 으아아아아!! (미친 듯 쇠파이프를 휘두른다)  
두목 : 이런 개새끼!!

두목, 찬이에게 다가간다...찬이가 휘두른 쇠파이프에 어깨를 맞는다.  
놀라는 아이들!!! 찬이 더 미친 듯 쇠파이프를 여기저기 휘둘러댄다.

두목 : (어깨를 감싸 쥐는 얼굴이 분노로 떨린다) 내 그리 잘해줬구만 나를 쳐? 조타...이  
제 너는 더 이상 내 아가 아니대이...

두목 비릿하게 웃으며...찬이와 맞서 마당을 슬슬 돌면서...철창 쪽으로 다가간다.

씨댕 : !!! (무엇을 감지한 듯 몸이 움찔 굳는다)  
두목 : (찬이를 살피며 철창의 문을 여는데...)  
씨댕 : !!! (안으로 뛰어 들어간다)  
오마이 : !!! (그런 씨댕을 본다)

#### 씬/91 두목의 사무실 (N)

거실과 연결된 사무실로 뛰어 들어와, 전화기를 잡는 씨댕.  
이때 들어오는 누군가...씨댕!! 놀라서 보던...오마이이다.

씨댕 : !!! 이대로 있으면 찬이 죽어...  
오마이 : ...

#### 씬/92 두목집 마당 (N)

철창의 문이 열린다. 긴장하는 찬이. 어느새 마당은 두려움과 공포로 지배당하는 분위기다. 베키에게 목줄을 채워 끌고 나오는 두목. 베키 미친 듯 날뛰는데...

두목 : (몸을 쓸어주며 진정시킨다) 꽤않다 꽤않다...  
베키 : ... (으르렁대며 찬이를 본다)  
찬이 : !!! (두려움이 밀려오는 얼굴이다)  
두목 : 내가 애기했재? 주인한테 대드는 개는 더 이상 개가 아녀. 개만도 못한 놈이재. 꿔오라. 개처럼 네발로 기어와가 내하고 베키한테 용서를 빌래이...  
찬이 : (타는 눈으로 두목을 노려본다)  
두목 : 내 말 안 들리나? 네 발로 기어오란 말이다!!!  
찬이 : (서서히 고개를 젓는다)  
두목 : 그래? ...후회는 없겠재? 내 이리 기회를 많이 줬구마...(베키의 목줄을 매만진다)

!!! 긴장하는 아이들. 형1.2

두목 : 우쨌든...니가 벌인 일이니께...니가 수습해 보그라. (툭. 목줄을 놓는다)

순간 찬이를 향해 달려드는 베키.  
이때 오마이와 함께 안에서 나오던 씨댕이 비명을 지른다.  
찬이, 달려드는 베키를 간신히 피하고 물러선다.  
침을 흘리며...찬이에게 다가오는 베키.  
찬이, 점점 구석으로 물리다...더 이상 피할 곳이 없게 된다. 절대절명의 순간...  
찬이, 쇠파이프를 든 손에 힘을 주지만...점점 떨리는 손...

베키 : (으르렁대며 찬이에게 다가간다)

눈을 질끈 감는 씨댕...아이들...  
이때, 싸이렌 소리와 함께 들어오는 경찰차 소리가 들린다.

형1.2 : !!!  
두목 : !!! 이런 개새끼...(분노에 찬 눈으로 찬이를 보다 재빨리 베키의 목줄을 잡는다)  
찬이 : !!!  
두목 : 뭐하노!! 빨리 아들 끌고 피하래이!! (형1.2에게 소리치는데)  
형1.2 : (놀라 서로를 보다...재빨리 문을 통해 달아나기 시작한다)  
두목 : 모하는 기고!! 거기 안서나!! 거기 서라 말이다!!

아이들 벌벌 떨며 보는데...홍분한 두목, 찬이를 돌아본다.

두목 : 두고 봐라. 내 이 빛은 꼭 갚아주고 말끼고마!!

썬/92 경찰서 (D)

전화벨이 울려대고, 조서를 쓰느라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들이 넘쳐난다.  
한쪽에 놓여진 긴 의자에 줄줄이 앉아있는 찬이. 씨땡. 오마이와 아이들.

형사1 : 어이 강형사. 애네들 아직도 연고자 못 찾은 거야? 벌써 며칠 제야? 일단 보호소로 보내.

형사2 : 그렇잖아도 조금 있다 데리러 올 겁니다. 달아난 두목 문제로 몇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어서요.

찬이 : ... (우두커니 앉아있던 표정에서) ... 야 오마이.

오마이 : 어? (보면)

찬이 : 너 다시 고아원으로 가면...다신 나오지 마. 엄마가 꼭 온다 그랬다며?

오마이 : 어...이젠 안 나올 거야...엄마 기다릴 거야.

찬이 : 너도. (씨땡 본다)

씨땡 : (찬이 보면)

찬이 : 언젠가 엄마 만나면 꼭 그 옷 사 달라 그래. 나도 못 알아보게.

씨땡 : ... 왜 그래? 넌 엄마 안 찾아?

찬이 : 난...엄마가...없어. 동생하고 나하고...들이야.

씨땡 : ...

찬이 : 나 지금 여기서 나갈 건데...비밀로 해줄 수 있지?

아이들 : (놀라서 본다)

찬이 : 그냥 가만히 있어. (일어나 가려는데)

씨땡 : 잠깐만. (찬이를 잡는다)

찬이 : (돌아보면)

씨땡 : 내 이름은 씨땡이 아니고 정현이야. 이정현. 기억할 수 있지?

찬이 : ... (끄덕인다)

씨땡 : 다음에 만나면...오빠라고 불러도 돼? (눈물이 맺힌다)

찬이 : (따뜻한 눈길로 씨땡을 보다...끄덕인다. 나가는데...)

형사2 : 야 너 어디 가?

오마이 : (눈치보다 배를 잡고 뒹군다) 오 마이 갓!! 아우 배야!! 아우 배야!! 오 마이 갓!!!

형사2 : 야 너 왜 그래? 어디 아파? (오마이에게 달려간다)

오마이 : (찬이에게 눈을 찡긋한다)

찬이 : ... (끄덕이곤 나가는데)

씨땡 : ... (눈물이 그러한 눈으로 그런 찬이를 바라본다)

썬/93 지하철 보관함 (D)

소이가 들어있는 보관함이 보이는 중에...무엇인가 얼썬대는 느낌이 보인다.  
그리고...그 느낌들을 상대로 또 무엇인가 얼썬대는 또 다른 느낌도 엿보인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주위를 살피며 계단을 내려오는 찬이가 보인다.

찬이 : ... (잔뜩 긴장한 표정이다)

찬이 보관함 앞에 이르러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곤 소이의 책가방을 본다.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찬이...책가방을 어깨에 매는데...

두목 : (OFF) 내 얘기했재? 빛은 꼭 갓아 준다고.

찬이 : !!! (놀라 돌아보면 두목과 목줄에 묶인 베키가 보인다) !!! (놀라 뒷걸음친다)

베키 : (충혈된 눈으로 침을 흘리며 으르렁댄다)

두목 : (비릿하게 웃으며 다가온다) 내가 세퍼트를 와 좋아하는지 아나? 세퍼트는 말이 다. 이 세상 모든 개들 중에서 (코 만지며) 이거이거. 이 코가 가장 발달된 종자 인기라. 한번 냄새를 맡으면! 계속해서 따라가! 한번 먹이를 물면! 절대 안 놔! 그개가 바로 이 갠기라.

찬이 : ... (겹에 질려 도망갈 구석을 찾지만 베키의 위세에 꼼짝을 못한다)

두목 : 어디 조용한 데로 가재이. 아무리 급해도 공중도덕은 지켜야 쓰지 않겠나?  
(찬이 끌고 가려는데)

찬이 : 이거 놔요!! (손을 뿌리치곤 개찰구 쪽으로 도망간다)

두목 : (순간 잡어!!)

두목 목줄을 놓으면 순간 찬이에게 달려가 몸을 날리는 베키.

베키, 찬이의 등 뒤를 공격하려는 순간.

이때 어디선가 튀어나온 개가 몸을 날려 베키와 부딪혀 떨어진다.

찬이 : (뒤를 돌아보다 놀란다) !!! 마 마음아!!

마음이다. 찬이를 보곤 쾅쾅! 짓는 마음이. 아직 아물지 않은 듯 여기저기 상처가 보인다.  
가던 길을 멈추고 갑작스런 개들의 싸움을 보는 사람들이 웅성인다.

두목 : !!! 저 저 자숙 살아있었네? ... 뭐하노 베키! 까버리!!

베키, 낮게 으르렁대며 마음을 공격하기 위해 주위를 돈다.

경계의 끈을 놓지 않으며...찬이를 향해 짓어대는 마음이.

찬이...그것이 자기보고 도망가라고 하는 것임을 알아챈다. 한걸음 두 걸음...뒷걸음치다..  
개찰구 밑으로 들어가 마음을 본다.

두목 : 니 거기 안서나!! 우덜 토끼라고!! (찬이를 쫓아 개찰구로 가려는데)

마음이 : (쾅쾅 짓으며 두목 앞을 막아서 으르렁댄다)

두목 : (위협을 느끼며 선다) 뭐하노 베키! 조져빠라!

베키 : (순간 이빨을 내밀고 마음에게 달려든다)

마음이 : (공격을 피하고...찬이를 보곤 쾅쾅! 가라고 짓어댄다)

찬이 : ...도망가! 너도 도망가!! (플랫폼 쪽으로 뛰기 시작한다)

마음이 : ... (떨어지는 찬이를 본다)  
두목 : 거기 안 서나!! (개찰구로 가려는데)  
마음이 : (또 앞을 막아서고 으르렁댄다)  
두목 : 이...똥개 새끼가...!!!

#### 썸/94 지하철 부산역 플랫폼 (D)

열차가 들어온다는 안내방송이 나오면서...멀리서 헤드라이트를 밝힌 열차가 들어온다.  
자꾸 뒤를 바라보며 계단을 내려오는 찬이.

찬이 : 마음아...마음아...(뒤 돌아 보는 눈가에 눈물이 고인다)

마침내 들어와 정차하고 문을 여는 1호선 열차.  
사람들 올라타고...아직 열려진 문 사이로 마음이 있는 쪽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찬이.

이때 멀리서...여자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면서 일대 혼란이 일어난다.  
사람들 틈 사이로 달려오는 마음이와 그 뒤를 목줄을 끌고 사납게 따라붙는 베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양 옆으로 몰리고...와중에 넘어지는 사람 등등 아수라장이 된다.

찬이 : 마 마음아!! (객차와 플랫폼에 각각 한발씩 걸치고 마음을 부른다)  
마음이 : (찬이를 발견하곤 죽어라 달려온다)

그 뒤를 쫓는 베키와...또 그 뒤로 달려오는 두목의 모습이 보인다.  
객차 안에 있던 사람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유리창에 얼굴을 대고 보고 있다.  
닫히는 문을 막아선 채 마음을 부르는 찬이.  
아슬아슬한 순간...마음이는 찬이를 향해 몸을 날린다.  
마음을 안고 뒤로 넘어지는 찬이. 이와 동시에 객차의 문이 닫힌다.  
뒤이어 몸을 날리던 베키가 닫힌 문에 부딪혀 떨어진다.  
곧이어 출발하는 열차. 뒤늦게 도착한 두목이 기동을 치면서 분에 못이겨 하는데...

베키 : (분노로 으르렁대다 달리는 열차의 뒤를 쫓는다)

찬이와 마음을 태운 열차가 터널 안으로 사라지면...철로로 몸을 던지는 베키.  
이때, 신호음이 들리면서 반대편 열차가 들어온다는 안내방송이 나온다.

두목 :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하고) 베키!! 돌아 와!! 안돼!! (경악한다)

하지만 이미 세퍼트는 찬이와 마음을 태운 열차를 따라 터널 안으로 달려 들어간다.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열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보여지는 베키.  
베키, 열차가 들어오는 철로로 달려오다...강한 불빛에 옆 철로로 피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때 어딘가에 걸려버리는 목줄. 피하려고 하지만 피할 수가 없다.  
목줄을 빼려고 다급하게 쾅쾅대던 베키의 모습이...한 순간 경적소리에 묻혀버린다.

얼마 후...사람들로 웅성이는 플랫폼.

베키가 달려갔던 어두운 터널에서...누군가가 걸어 나오고 있다.

피투성이로 죽은 베키를 양팔에 안고 흐느적대며 걸어 나오는...두목이 보인다.

두목 : 베키야...베키야...(동공이 풀려있다) ... 베키야!!!! 으아아아아아~~

죽은 개를 안은 채, 철로에 꿰어앉아...괴성을 질러대는 두목의 모습이...길게 보여진다.(F.O)

### 썸/95 여행사 사무실 (D)

(F.I) 국제결혼. 이민. 여권. 비자발급 대행...등의 문구와 광고사진들이 붙어있다.

상담 테이블에 앉아 엄마에게 서류를 확인 시켜주는 직원.

직원 : K-1 비자는 들어가셔서 90일 이내에 결혼해야 되는 거 아시죠?

엄마 : ...네.

직원 : (서류 보며) 한국인 시민권자하고 결혼하시네요. 초청장은 들어와 있는 거 확인했  
고...비자에 필요한 서류는 저희가 다 대행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직원이 자리를 뜨면...여권을 보는 엄마의 표정이 착잡하다.

펼쳐져 있는 여러 서류 중에서 호적등본이 보여진다.

찬이 아빠의 이름이 보여지고...그 칸에 크게 그려진 엑스포가 사망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착잡하게...그 엑스포를 바라보다...손을 뺀 한 장 넘겨보는데...

엄마 : !!! (둔기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는다. 머리를 흔들고 다시 보면...)

호적등본이 보여진다. 찬이의 이름이 적힌 칸과...그 아래 소이의 이름이 적혀있는 칸.

소이의 이름이 적혀있는 칸에 커다란 엑스포시가 보인다. 아빠의 그것처럼...

엄마 : (눈이 풀려있다...천천히) 여 여보세요...이거 잘못 됐는데요? 여기 애네들...내 애  
들 인데...여기 이상한 게 있네?...이거 아닌데...여...보세요!

직원들 : ??? (엄마를 본다)

엄마 : (별걱) 이봐요! 이리 좀 와 봐! 이것 좀 보란 말야! 이거 잘못 됐다니까!! 이거 아  
니라구!!! (정신이 나간 얼굴이다) (F.O)

### 썸/96 찬이 집 (D)



(F.I) 사람이 살지 않아 황폐해진 분위기의 찬이 집이다. 문이 열려 덜컹이는 화장실 문... 찬이와 소이가 뛰어 놀던 마당으로...겨울비가 내리고 있다. 열려진 방문 앞으로...아무렇게나 앉아있는 엄마...엄마의 눈동자는 이미 풀려있다. 얼굴로 흘러내린 머리... 엄마의 주변으로...소이가 그린...엄마의 그림들이 널려져...날리는 빗방울에 조금씩 젖어간다. 카메라 엄마의 손을 잡으면...찬이가 만든...엄마의 찰흙부조가 들려져 있다.

엄마 : ... (초점을 잃은 멍멍한 눈길...오래도록 보여진다...마침내 굵은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린다)

양쪽에서 엄마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찬이.소이...그림이 보여지면서...

### 씬/97      엄마집 앞 (D)

비가 내리고 있다...망설이며 엄마집 앞 골목으로 들어서려는 찬이. 그 뒤를 따라오는 마음이. 찬이 멀리서 엄마 집을 바라보다...용기가 안나 뒤돌아서면...경! 짙는 마음이. 찬이...다시 용기를 낸 듯 엄마 집 앞으로 걸어간다. 그 뒤를 따라가는 마음이. 찬이...마침내 엄마집 앞에 다다라, 계단을 오른다.

엄마 집 현관 앞. 떨리는 손으로 벨을 누르는 찬이. 하지만...안에선 기척이 느껴지지 않는다. 텅 빈 엄마집 거실로...벨소리만 자꾸 울려 퍼진다.

잠시 후, 계단을 내려와...오던 골목으로 되돌아 나가는 찬이.

엄마 : (OFF) 여기 집 내렸으니까 다음엔 와도 엄마 없을 거야. 엄마가 연락할게.

무표정하게 걷는 찬이의 얼굴위로 빗방울이 부딪혀 떨어진다. 마음이가 집 앞에서 킁킁대다...할 수 없이 찬이의 뒤를 따라간다.

잠시 후...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보인다. 엄마집 현관문이 열리며 들어오는 사람...엄마다. 찬이를 찾지 못해 낙담한 엄마는 현관 입구에서 무너지듯 주저앉는다. (F.O)

### 씬/98      패밀리 레스토랑 (N)

(F.I) 빗물이 흘러내리는 창문 안으로...엄마와 찬이.소이가 저녁을 먹는 단란한 모습이 보인다...차츰, 또래의 아이들과 아이들을 챙겨주는 엄마의 모습으로 변한다. 창문 밖에서 비를 피하며...안을 들여다보는 찬이의 눈길이 슬퍼 보인다. 찬이와 거리를 두고 서 있던 마음이가 그런 찬이를 올려다본다...

우산을 받쳐주는 엄마와 함께 사라지는 아이들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는 찬이...

### 씬/99 지하보도 (N)

육교 대신 설치된 지하보도. 원래 사람들의 통행이 많지 않아 쓸렁한 분위기다.  
빗소리가 들리고...비를 피해 들어온 찬이가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꺼낸다.  
찬이와 똑 떨어져서...그런 찬이를 바라보는 마음이.

찬이 : (햄버거를 한입 베어 물다가...마음을 의식한다)  
마음이 : ... (눈치만 보고 있다)  
찬이 : (빵을 조금 잘라내 마음에게 던져 준다)  
마음이 : (다가와 넬름 주워 먹고 꼬리를 흔들며 찬이를 바라본다)  
찬이 : ... (다시 고기부분을 잘라내 던져준다)  
마음이 : (조금 더 다가와, 넬름 받아먹고 다시 물끄러미 찬이를 본다)  
찬이 : !!! (안되겠다 싶어 등을 돌리고 한 입 먹는데)  
마음이 : (슬금슬금 다가와 찬이 앞에 앉아 물끄러미 찬이를 본다)  
찬이 : ... (할 수 없이...빵 부분을 다 내밀면)  
마음이 : ... (찬이가 들고 있는 고기 부분을 빼히 쳐다본다)  
찬이 : ... (자기가 들고 있는 고기 부분을 보다...기가 막힌 듯 마음을 본다)

잠시 후, 햄버거를 맛나게 먹고 있는 마음이와...마음을 쏘아보는 찬이가 귀여워 보인다.

차들이 다니는 지하보도 위로는, 계속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다.  
한쪽 벽을 보고 가방을 꼭 안은 채...신문지를 덮고 잠을 자고 있는 찬이...  
한껏 몸을 웅크리고 자던 찬이의 입에서...깊은 기침소리가 흘러나온다.  
마음이가 반대편 벽 쪽에 웅크리고 엎드려, 그런 찬이를 걱정스레 바라본다..  
마음이가 찬이에게 다가간다. 덜덜 떠는 찬이의 얼굴이 온통 땀으로 가득하다...  
깡깡대던 마음이...혀로 찬이 얼굴의 땀을 핥아준다...비가 오는 밖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비가 오는 밖으로 나오는 마음이...비를 맞으며 혀에 빗물을 축이더니...  
계단을 내려가...찬이에게 가서는...찬이의 이마를 핥아댄다.  
몇 번 핥다가...다시 밖으로 나가...빗속에서 혀를 축이고...  
다시 찬이에게 가서 이마를 핥아대는 마음이의 모습이 보여진다. (Dissolve)

다음날 아침. 앓고 있는 찬이가 보인다. 하지만 마음이는 보이지 않는다.

### 씬/100 빵집 앞 (D)

갓 구워낸 빵을 전시하는 빵집 주인이 보인다...

한쪽 골목에서 진열창 안의 빵을 바라보는 마음이...눈이 아픈 듯 앞발로 눈을 비벼댄다.  
잠시 후, 빵집에서 엄마의 손을 잡고 빵을 사서 나오는 여자아이(6살)가 보인다.  
마음이의 시선에서...흐릿하게...여자아이의 손에서 흔들리는 빵 봉투가 보인다.  
엄마 손을 잡고 웃으면서 가는 여자아이. 손에서 흔들리는 빵 봉투가 점점 커 보인다.

마음이 : !!!

마음이가 흐릿하게 흔들리는 빵 봉지를 향해 달리기 시작한다. 점점...가까워져 간다.

아이 : (무슨 소리를 들은 듯 뒤를 돌아보다...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마음을 본다)  
엄마아아!!

엄마 : (놀라서 돌아보다 비명을 지른다) 아아악!!

아이 놀라서 빵 봉투를 놓치곤, 엄마에게 매달리며 기겁을 해서 우는데...  
빵 봉투에서 떨어져 나와 흩어진 빵 봉지를 향해 달려드는 마음이.  
엄마는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안고 자리를 피한다.

마음이, 빵 봉지를 물려는데...흐릿해 보이는 통에 놓쳐 버린다.  
당황해서 빵 봉지를 물려고 애를 쓰는 마음이.  
어느새 빗자루를 휘두르며 뛰어 나오는 빵집 주인이 보인다.

씬/101 지하보도 위 거리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리...힘겹게 계단을 올라온 찬이가 마음을 찾는다.  
이때...저 멀리 어둠이 내린 반대편에서...무엇인가 다가오는 것이 보인다.  
차츰 보이는 그것은...찢뚱대며 걸어오는 마음이다.  
마음이의 입에서 빵 봉지가 매달려 덜렁거리고 있다.

찬이 : ...마 마음아... (마음이에게 힘들게 다가가면)  
마음이 : (깡깡대며 찬이에게 힘들게 다가온다)  
찬이 : ...왜 그래? 어디 아파?  
마음이 : (빵 봉지를 찬이 발밑에 놓곤...코로 밀어내며 깡깡댄다)  
찬이 : (빵을 들어보다) !!!

찬이와 마음이 사이에...잠시의 침묵이 흐르며...빵을 들고 있던 찬이의 손이 서서히 떨린다.

찬이 : 너...이거 어디서 났는데...이것 뭘에 다친 거니?...너! 누가 이 따위 짓 하겠어!!  
어!! (벌칙 화를 내며 빵을 내동댕이친다) 누가 너보고 빵 훔쳐 오래!! 어!!

마음이, 꼬리를 내리고 깡깡대다...다시 찢뚱대며 다가가...떨어진 빵을 다시 입에 물곤...

찬이 발밑에 놓는다. 찬이에게 빵을 밀어대며 킁킁대는 마음이...

찬이 : !!! (울컥! 마음을 본다)

마음이 : (계속 빵을 밀어대며 킁킁댄다)

찬이...눈물을 참으려고 하늘을 보면...어느새 빨갛게 노을이 지는 하늘이다. (F.O)

씬/102 똑방길 육교 앞 (D)

(F.I) 오랜만에 내리찍는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산책을 하는 찬이와 마음이.  
간간이 깊은 기침을 토해내는 찬이도, 그 옆에 마음이라도 참 많이 야위어있다.

찬이가 앞 서 걷고...마음이가 뒤를 따르는 길. 둘의 거리는 많이 좁혀져 있다.  
찬이...뒤돌아보면...그 자리에 서서 찬이를 바라보는 마음이.  
찬이...이리 오라고 팔을 벌리면...마음이가 다가와 찬이에게 안긴다.  
눈이 아픈 듯 앞발로 자꾸 눈을 비벼대는 마음이...

찬이 : 그만 비벼...자꾸 비비니까 눈이 빨개지잖아.

마음이 : ... (찬이를 바라보는데...눈이 충혈 되어 있다)

이때 육교 앞을 지나가는 양아치1.2. 찬이와 마음을 흘깃 보곤...가웃하며 지나간다.  
서로 귀엣말을 나누다 다시 찬이와 마음을 돌아보며 간다.

찬이...힘들게 육교를 내려오고 있다. 난간을 잡고 내려오다...힘에 부친 듯 뒤를 돌아보는데...  
마음이가 계단 중간에 서서 구토를 하고 있다.

찬이 : !!! 마음아. 왜 그래? 어?

마음이 : (계속 옥옥 대며 구토를 한다)

찬이 : 너 뭐 먹었어? 썩은 거 주워 먹은 거 아냐?

마음이 : (구토를 멈추고 찬이를 바라보는데...눈이 심하게 충혈되어 있다)

찬이 : 괜찮겠어?

마음이 : (꼬리를 흔들며 댄다)

찬이 : 아 새끼 정말...사람 놀래키고 있어. 빨리 가.

마음이, 찬이 보다 앞서서 계단을 내려간다. 하지만 흐릿하게 보이는 계단...  
몇 걸음 옮기다 발을 헛딛곤 계단 아래도 굴러 떨어진다.

찬이 : 마음아!! (놀라 달려가는 모습에서)

육교 기둥에 붙어서 덜렁거리고 있는 전단이 보여진다.

찬이의 얼굴이 들어있는 전단...찬이를 찾는다는 엄마의 전단이다.

### 씬/103 동물병원앞 (N)

밤. 병원의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와 문을 잠그려는 나이 많은 수의사가 보인다.

노수의사: (문을 잠그려는데...뭔가 느낀 듯 돌아본다)

병원 옆 구석진 곳에서 마음을 껴안고 앉아 있는 초췌한 모습의 찬이가 보인다.

다시 병원의 불이 켜지고...의료용 전등을 비춰가며 마음이의 눈을 살펴보는 수의사.

노수의사: (진료를 끝내고) 급성 녹내장이로구나...머리를 심하게 다친 적이 있었나 본데, 치료 못 받아서 증세가 심해졌어. 수술 시기도 놓친 것 같고...

찬이 : !!! 그 그럼...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수의사: 이 정도면 잘 보이지도 않았을텐데...어떻게 따라 다녔나 모르겠구나.

찬이 : 네? (너무 놀라 멍멍한 표정이다...마음을 보는데)

마음이 : (꼬리를 흔들며 찬이에게 와 머리를 비빈다)

노수의사: 다른 병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피 검사를 좀 하자꾸나. 잠깐만 기다리렴. (안으로 들어가며) 너도 병원 좀 가보지 그러니.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찬이 : ... (눈물이 나는지...마음이의 모습이 아롱져 보인다)

잠시 후...안에서 나오는 노 수의사. 하지만 찬이와 마음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 씬/104 지하보도 (N)

실내 등이 망가졌는지 간간히 깜빡이는 전등이 보인다.

우두커니 앉아서...웅크리고 엎드려 있는 마음을 바라보는 찬이...

찬이 : ...마음아...

마음이 : ... (고개를 들어 찬이를 본다)

찬이 : ... 배고프지? 우리...소이한테 뭐 사 달라 그럴까?

마음이 : (소이. 소리에 눈을 반짝 뜬다)

찬이 : 잠깐만 있어 봐...(소이 가방에서 삼푸통을 꺼내 열곤...만원짜리를 꺼낸다) ...이 거...엄마가 소이 착한 일 많이 했다고 준 거거든? 소이가 너 많이 좋아했으니까... 너 맛있는 거 사 준다 그럼 뭐라고 안 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맛있는 거 사 다줄게. (일어나는데)

마음이 : (따라갈 생각으로 따라 일어난다)

찬이 : 나 혼자 갔다 올테니까 넌 여기 있어. (걸어가면)

마음이 : (찬이를 따라 온다)  
 찬이 : 야 넌 아프잖아! 그냥 여기 있으라니까! (걸어가면)  
 마음이 : (또 찬이를 따라 간다)  
 찬이 : (벌컥) 야! 눈도 안 보이면서 어딜 따라 올라 그래?! 자꾸 돌아다니면 너 더 힘들어 진단 말야!!  
 마음이 : (찬이에게 다가와 머리를 부비며 킁킁댄다)  
 찬이 : ... (그런 마음을 내려다보다...) 왜? 내가 또 너 버리고 갈까봐 그래? ...(감정이 북받쳐 오른다) 이젠 눈도 안 보이는데...또 헤어지면...다신 나 못 찾을까봐 그래? ...그래서 그래?  
 마음이 : (그저 찬이의 몸에 얼굴을 비벼대며 킁킁댄 뿐이다)  
 찬이 : (천천히 마음을 안으며 앉는다) 나 이제 어디 안 가...내가 너한테 미안한 게 얼마나 많은데...나 때문에 다친 거 아는데...눈도 안 보이면서 나 챙겨준 거 아는데.. 너만 보면 소이가 보고 싶어서...미워하고 괴롭히고...미안하다는 말도 못했는데... 내가 어딜 가...나 안가. 나 아무데도 안가...그러니까 아프지 마...제발 아프지 마...

찬이, 마침내 마음을 안고 울음을 터트린다. 그렇게 쌓이고 쌓였던 눈물이 터져 나온다. 잠시...마음이의 충혈된 눈에도 눈물이 맺히는 가 싶더니... 찬이의 마음을 다 안다는 듯이...찬이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혀로 닦아준다.

찬이 : 마음아!!

마음을 더 세게 끌어안고 우는 찬이의 모습 위로...깜박이는 전등이 보여진다. (Dissolve)

그날 밤. 잠든 찬이 옆에서 웅크리고 있던 마음이가 갑자기 무슨 소리를 들은 듯 벌떡 일어난다. 주위를 두리번대는 마음이. 하지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자꾸 킁킁대며 불안하게 지하보도를 서성이는 마음이... 잠시 후, 지하보도를 올라오는 마음이가 보인다. 차들의 움직임도 뜸한 깊은 밤... 마음이는 몸이 이상한지 자꾸 머리를 털어내며 정신을 차리려고 한다. 어느새, 마음이의 입가로 침이 흐르기 시작한다. 예전...베키가 보여주던 바로 그 증상이다. 어느 순간...어두운 하늘을 향해...슬프게 울어대는 마음이가 보여진다...(F.O)

씬/105 지하보도 (D)

(F.I) 기침소리와 함께 얼굴에 열꽃이 핀 찬이가 힘겹게 눈을 뜬다. 마음이가 안 보인다.

찬이 : 마음아! (놀라 두리번대는데)

지하보도 끝 멀리서, 웅크린 채 찬이를 보고있는 마음이.

찬이 : (휴~ 안도하며) 거기서 뭐해? 이리 와 마음아. (손 내미는데)  
 마음이 : ... (꼼짝도 하지 않는다)  
 찬이 : ??? 왜 그래? 이리 오라니까.  
 마음이 : ...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다)  
 찬이 : 왜? 거기 뭐 있어? (힘겹게 일어나 다가가려는데)  
 마음이 : (벌떡 일어나 찬이를 향해 으르렁대며 짖는다)  
 찬이 : !!! 왜? ... 너 뭐 나한테 화난 거 있냐? 갑자기 왜 그러는데? (다가가면)  
 마음이 : (위협적으로 킁킁 짖는다)  
 찬이 : ... (영문을 몰라 당황한 표정이다)

### 씬/106 두목 차 안 (D)

차 안에서 생활을 하는 듯, 이불이며...휴대용 가스렌지...라면...등이 지저분한 차 안이다. 핸드폰 벨이 울린다....전화기를 잡는 손.

두목 : (발신자 확인하고, 전화 받는다. OFF) 그래 내다...(표정 굳어진다) 뭐라했노?...분명히 고만한 아하고 개새끼라 했지? 보자. 가보면 알겠재.

전화를 끊으며 비릿하게 웃는 두목. 분노로 이글대는 눈이다.

### 씬/107 지하보도 위 똑방 길 (N)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리. 고열 때문에 잘 걷지도 못하는 찬이가 마음을 찾는다.

찬이 : 마음아...마음아...

하지만, 마음이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찬이 : (답답하다) 야! 도대체 왜 이러는데? 생각해보니까 나한테 열 받아!! 도대체 뭐가 빠져서 이러는데!! (하다 거칠게 기침을 토해낸다)

현기증이 나는지...비틀대며 다시 지하보도로 내려가는 찬이의 모습 뒤로... 똑방 위로 마음이가 나타나 그런 찬이를 바라본다...눈빛이 슬퍼 보인다....

이때...주인을 따라 산책을 나온 개가 마음을 발견한다...나무조각을 씹으며 으르렁대는 마음이...개는 깡깡대다 목줄을 당겨 도망치고...개를 잡으려고 뛰는 주인이 보인다. 으르렁대며 어디론가 사라지는 마음이다...

썸/108 육교 앞 / 지하보도 (N)

두목의 차가 육교 앞에 와 멈추고...두목이 내린다.  
여기저기를 둘러보다...지하보도를 향해 걸어가는 두목의 발걸음이...  
아무 것도 모른 채 지하보도에서 앓고 있는 찬이와 불안하게 교차된다.  
계단을 내려가는 두목...점점 다가가는 발걸음...  
두목, 계단을 다 내려와 찬이가 누워있는 통로로 접어드는데...

두목 : !!! (뭔가를 본 듯 다시 계단 쪽으로 몸을 숨긴다)

두목의 눈으로 보이는 경찰1,2.

경찰2 : (전단 꺼내보며) 애 맞죠?

경찰1 : 그런 거 같은데. 일단 파출소로 옮기자구.

경찰1,2 앓는 찬이를 안고 가지만...찬이는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숨어서 이 모습을 보는 두목의 시선이 불타오른다.

-시간 경과

아무도 없는 지하보도로 침을 흘리는 마음이 내려온다.  
그러다...찬이가 없어진 것을 알고 당황하는 마음이...  
찬이가 누워있던 자리로 가 쿵쿵 냄새를 맡다...경찰들이 사라진 쪽을 바라본다.

썸/109 파출소 / 숙직실 (N)

경찰차를 뒤따라온 두목의 차. 찬이를 안고 들어간...파출소를 바라보는 두목이 보인다.  
앓는 찬이를 숙직실에 누여놓는 경찰1. 가져온 책가방을 찬이 옆에 놓고 나간다.  
사무실과 반대편에는...밖으로 통하는 쪽문이 불안하게...보인다.

경찰1 : 보호자한테 연락했어?

경찰2 : 네. 일단 와봐야 신원확인이 되겠는데요.

경찰1 : (서랍에서 체온계 꺼내주며) 애가 열이 많은 거 같던데 가서 한번 재봐. 병원으로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냐?

경찰2 : 가서 한번 볼게요.

경찰2, 숙직실 쪽으로 가는데...반대편 통로의 문이 열려있다.  
가웃하며...숙직실로 가보는 경찰2. 찬이는 간데없고, 소이의 책가방만이 덩그러니 놓여있다.

경찰2 : 박경사님!! 박경사님!!!



씬/110 파출소 밖 (N)

두리번대며 파출소 쪽으로 다급하게 걷는 마음이. 찬이를 찾느라고 흥분한 상태다.  
이때, 마음이의 눈으로...찬이를 차에 밀어 넣고, 재빨리 운전석에 올라 출발하는 두목이 보인다. 그 뒤로 뛰어 나오는 경찰1.2

경찰1 : 이봐! 거기 서!!

하지만 이미 출발하는 두목차. 백미러를 통해 두목의 웃는 이빨이 보인다.  
경경 짚어대며 멀리 사라지는 두목의 차를 따라...정신없이 달려가는 마음이...

경찰1 : (따라가면서 다급히 무전기를 켜다) 서울 45 거 62\*\* 서울 45 거 62\*\* ...

씬/111 도로 (N)

달려가는 마음이의 눈에...두목의 차가 보이다 사라지고...보이다 사라진다.  
두목의 차를 쫓아 거리를 달리는 마음이. (F.O)

씬/112 지하철 부산역 (N)

(F.I) 불이 꺼지고...셔터가 내려진 역 구내. 셔터 한쪽에 만들어진 철문의 자물쇠가 부서져 있다. 바람에 왔다 갔다 흔들리는 철문이 보인다.

터널 안. 몸이 묶인 찬이를 끌고 어느 지점에 다다른 두목의 눈동자가 멍멍해진다.

두목 : 꿇으라! 꿇어!! (찬이를 강제로 누르면)

찬이 : (힘없이 무릎을 꿇는다)

두목 : 예가 으딘줄 아나?...우리 베키가 죽어간 곳이대이...

찬이 : !!! (힘없이 두목을 올려다본다)

두목 : (눈물이 흘러내린다) 나는 아직도 모르겠다...그 놈아가 몬 잘못을 했다고...내 밖에 모르고 내도 가밖에 몰랐는데...와 우리가 헤어져야 됐는지...왜 하늘이 이런 시련을 주는지 나는 참말로 모르겠다...(눈물 닦으며) 하지만...넌 알재? 와 죽였노?

찬이 : ??? (두목을 보면)

두목 : 와 죽였노!! (벌컥 양손으로 찬이의 멱살을 잡고 공중으로 들어올린다) 와 죽였나 말이다!! 너는 살인자야! 살인자!!! (찬이를 보는 동공이 완전히 풀려있다)

찬이 : (겹에 질려 떠는데)

두목 : (찬이를 툭 놓곤 몽둥이를 주우며) 그라도 내가 이리 니를 데려왔으니 우리 베키도

좋아할끼고마.

찬이 : (두려움으로 가득하다. 무서워서 운다) 왜 왜 이러세요...

두목 : 몰라서 묻나? 니는 니 혼자 멀리 가몬 발길이 떨어지더나? 널 죽인 놈이 눈 시퍼  
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맘 편히 갈 길, 갈 수 있나 말이다!!

찬이 : 사 살려주세요. 살려 주세요~ (겁에 질려 운다)

두목 : 야야~ 그라도 사람이 좋긴 좋다. 갈 때 말도 하고...우리 베키는 그냥 갔대이...  
가라고 모 할 말이 없어가 그냥 갔잖나!! 할 말이 없어가 그냥 갔잖나 말이다!!

찬이 : (눈 질끈 감는데)

이때, 킁킁! 짓으며 철로로 뛰어 내려와 달려오는 마음이.

두목 : (멈칫하고 본다) !!! (놀란 얼굴)

찬이 : (놀라서) 마 마음아!!

마음이 달려오던 힘으로 두목에게 달려든다. 두목 놀라는 표정에서...

#### 씬/113 부산역 앞 (N)

두목의 차 옆으로...경광등을 번쩍이며 경찰차가 서 있다. 칙칙! 무전기 소리 들리며...  
경광등을 번쩍이며 추가 지원된 경찰차1.2가 역 앞으로 급히 들어와 선다.  
급히 경찰차에서 내려 총기를 확인하고...무전을 하는 경찰들 틈으로...  
경찰차 뒷문이 열리며 엄마가 내린다. 엄마의 손에 들려 흔들리는 소이의 책가방...

엄마 : 찬이야...찬이야...

#### 씬/114 지하철 부산역 플랫폼 (N)

두목에게 달려든 마음이가 두목을 넘어트리곤 이빨을 들이민다.  
마음이의 턱을 잡고 밀며 엉기는 두목.

찬이 : 마 마음아! 마음아! 도망가!! 위험해!!

하지만, 두목의 왼팔을 물고 늘어지는 마음이. 두목의 왼 팔로 피가 흘러내린다.  
두목은 왼팔을 물린 채 버티며...오른손을 더듬어 커다란 돌멩이를 줍는다.  
그리고 마음이의 머리를 향해 돌멩이를 내리친다.

두목 : 이 개새끼!! 죽으라!! 죽어빠리!!!

깡! 나가떨어지는 마음이.

찬이 : 마음아! 마음아!! (찬이 일어나 비틀대며 마음에게 가는데)  
두목 : (다가오는 찬이를 확 돌아본다. 동공이 풀린...눈빛이다)  
찬이 : (멈칫하며) 마 마음아...  
두목 : (마음에게서 일어나 천천히 몽둥이를 집어 든다)  
마음이 : (흐릿하게 보이는 찬이...)  
찬이 : !!! (겁에 질려 뒷걸음치다...철로에 걸려 뒤로 넘어진다. 눈을 질끈 감는데)

이때, 마음이가 마지막 힘을 다해 일어나...찬이 앞으로 몸을 날린다.  
순간, 내리쳐진 몽둥이가...몸을 날린 마음이의 머리에 작렬한다.  
퍽! 소리와 함께 떨어져...축 늘어지는 마음이.

찬이 : 마음아! 안돼 마음아!! 마음아!! (기어서 마음에게 가는데)  
마음이 : (축 늘어져 간헐적으로 심한 경련을 일으킨다)  
찬이 : (뚝인 두 손으로 마음을 안는다) 마음아...마음아...마음아...(눈물이 넘친다)  
두목 : (성큼 성큼 찬이에게 다가가는데)  
경찰 : (OFF)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총을 겨누고 철로로 뛰어 내리는 경찰들이 보인다. 총구를 겨누고 두목에게 다가가는 경찰들.

두목 : (그런 경찰들을 보다 피식피식 웃는다) 와? 내도 보내줄라고? 그리해라 마!!  
베키야!!! (찬이를 향해 몽둥이를 휘두르는데)

탕! 소리와 함께 불을 뿜는 총구. 두목의 손에서 몽둥이가 힘없이 떨어진다.

두목 : (뒤로 멈칫 물러서며 물끄러미 다리를 보던...)

두목의 허벅지로 피가 흐른다...허벅지를 잡고 비틀대다 쓰러지는 두목.

잠시 후, 경찰들로 가득한 플랫폼으로...들것에 실려 나가는 두목의 모습이 보이고...  
뒤이어 계단을 뛰어 내려오는 엄마의 모습이 보인다.

찬이 : (마음을 안고) 마음아...일어나 봐...마음아...  
마음이 : (경련을 일으키다 가늘게 눈을 뜬다)  
찬이 : 마음아. 나 보여? 괜찮은 거지? 그치? (하는데)  
엄마 : (OFF) 차 찬이야...  
찬이 : !!! (엄마를 본다)  
엄마 : 찬이야...미안해...엄마가 잘못 했어...미안해 찬이야...(울면서 주저앉는다)  
찬이 : ... (다시 마음을 본다)  
마음이 : (눈이 자꾸 감기려고 한다)  
찬이 : 마음아...엄마가 왔어...눈 좀 떠봐....

마음이 : ... (서서히 눈이 감긴다)

찬이 : 눈 감지 마 마음아...눈 좀 떠 봐...엄마가 왔단 말야~ 마음아~ 마음아아아!!!

깊디깊은 터널 안으로...마음을 애타게 부르는 찬이의 외침이 울려 퍼진다. (F.O)

### 씬/115 동물대학병원 복도 (N)

(F.I) 철창에 실려 '격리실' 팻말이 붙어있는 방으로 실려 들어가는 마음이의 모습이 보인다.  
마음이의 입에는 낫선 입마개가 씌어져있다.

그 뒤를 따라가다...제지 당하곤, 발버둥치며 울부짖는 찬이가 보인다. 굳게 닫히는 방문.  
격리실 문을 향해 다가가려고 울부짖는 찬이와...막아서는 수의사들의 실갱이가...슬로우로...  
가슴 아프게...보여진다.

카메라...격리실 안으로 들어가면...

철창 안에 입마개를 하고 누워있는 마음이가 보인다.

충혈 된 눈...힘겹게 누워서 으르렁대는 마음이.

마음이의 귀로...마음을 부르며 울부짖는 찬이의 소리가 들린다....(Dissolve)

### 씬/116 격리실 앞 (D)

격리실 밖 의자에 앉아 있는 찬이의 눈길에 멍하다...

좁 떨어진 일각에서 수의사1과 이야기를 나누는 엄마가 보인다.

의자에 앉아...격리실을 바라보는 찬이의 귀에...간간이 수의사의 소리가 들린다.

수의사1 : 광견병 증세를 보인 이상 저희들로서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찬이 : ...

수의사1 : 어떻게 보면 잔인 한 것 같지만...광견병에 걸린 개들은 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갑니다. 어쩌면 안락사란 방법이 저놈한테는 더 편할 수 있겠죠.

찬이 : ...

수의사1 : 고통은 없을 겁니다. 잠이 드는 거하고 똑같을테니까요...

찬이 : ...

이때, 격리실에서 나오는 수의사2...잠시 자리를 비운다.

찬이 : !!! (돌아보면...수의사는 엄마와 이야기 중이다)

살그머니 일어나 격리실로 다가가는 찬이...주위를 살피며 재빨리 안으로 들어간다.

씬/117 격리실 (D)

격리실로 들어와 문을 닫는 찬이. 철창 안에 입마개를 하고 누워있는 마음이가 보인다.

찬이 : (눈물이 핑 돈다) 마음아...

마음이 : !!! (찬이의 소리에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고 하지만 곧 무너져 내린다)

찬이 : 마음아...나야...많이 아프지? (다가가는데)

마음이 : (일어서지 못하고...찬이를 향해 으르렁댄다)

찬이 : 그러지 마...나도 다 알아...니가 왜 나한테 이러는지...왜 자꾸 나한테 나쁘게 하는지 이제 다 알아...(눈가가 축축해져 온다)

마음이 : ... (충혈된 눈으로 찬이를 본다)

찬이 : 괜찮아...나 너한테 안 옴아...옴으면 어때...우리 이제 헤어지지 않기로 했잖아... 이제 아무도 우리 못 떼어놔...너도...알지? 그치 마음아? (다가가면)

마음이 : ... (깊디 깊은 눈으로 찬이를 담는다)

이때, 문이 벌컥 열리며 들어오는 수의사1,2와 엄마.

엄마 : 찬이야!

수의사1 : 여긴 들어오면 안된다 그랬지! 위험하단 말야!!

마음이 거칠게 짚어대지만 입마개 때문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거칠게 으르렁댄다.

찬이 : (막아서며) 아니예요! 마음인 나한테 안 그래요! 갑자기 들어오니까 놀라서 그래요! 애가 얼마나 겁이 많은데요. 내가 뭐라 그럼 꼼짝도 못하고...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고...근데 무서워서 그래요. 나도 없는데...혼자만 아프니까 무서워서 그래요. 무서워서... (간절한 눈으로 수의사1을 본다)

수의사1 : ... (침통한 표정으로 수의사2에게 눈짓을 하면)

수의사2 : (고개를 끄덕이곤...밖으로 나가려는데)

찬이 : 안돼요!! (달려가 수의사1을 잡고 애원한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네? 마음인 괜찮아 질 수 있어요. 내가 간호하고 다 할게요. 내가 낫게 해줄 수 있어요 네?

수의사1 : (고개를 돌린다)

서서히 그 자리에 무너지며 무릎을 꿇는 찬이...

찬이 : 그럴 수 없다면...살려줄 수 없다면...집에 가게 해주세요...우리 마음아...마음이하고...집에 가게 해주세요. 네? (수의사를 올려보는 얼굴에 눈물이 범벅이다) (F.O)

씬/118 동물병원 앰브런스 안 (N)

(F.I) 운전을 하는 동물병원 직원과...그 옆에 앉아있는 의사1이 보인다.  
창문 틈으로...뒷칸에 앉아있는 찬이와...엄마...마음이...보인다...  
마음이의 입에는 입마개가 씌여져있다.  
혈떡이는 마음을 안고 있는 찬이...  
어느덧 차는...찬이의 집...버스정류장이 있는 곳까지 다다른다.  
마음이의 눈으로 흐릿하게 버스정류장이 스쳐 지나간다.

소이 : (OFF) 기다리면 오는 거야. 엄마도 여기서 버스타고 갔으니까 여기로 올 거야.  
엄마 올 때도 우리 여기 나와서 기다리자. 알았지?  
마음이 : ... (눈빛이 깊어 보인다)

### 씬/119 찬이집 방 / 마당 (N)

소이의 이불 위로 조심스레 누여지는 마음이 보인다.

찬이 : 이거 소이 이불이야...소이 냄새 나?  
마음이 : (가늘게 눈을 뜨고 킁킁댄다)  
찬이 : 이제 집에 왔으니까...아무데도 가지 말자 응?  
마음이 : (찬이의 손을...입마개로 힘들게 부빈다)  
찬이 : 그래...우리 이제 아무 데도 가지 말자...아무 데도 안 갈 거야...

찬이 마음을 안고...마음이의 몸에 얼굴을 묻고....흐느낀다. .  
그런 찬이를 바라보며 킁킁대는 마음이의 눈이 슬퍼 보인다.  
방문 밖에서 그런 찬이와 마음을 보며...눈시울을 붉히는 엄마와 침통한 표정의 의사1.  
(Dissolve)

소이의 이불 위에 누워 고통스럽게 우는 마음이 보인다.  
이제 마음이의 몸은 거의 마비되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보다...울음을 참으며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찬이.

밖으로 나와 비로소 마음이 앞에서 보이지 못한 눈물을 보이는 찬이.  
엄마가 그런 찬이를 애뜻하게 안아준다.

찬이 : (멍한 눈으로 의사를 바라본다) ...  
의사 : ... (아주 천천히...고개를 끄덕인다) (Dissolve)

고통에 지쳐 간신히 잠이 든 마음이 보인다.  
조심스럽게 들어와 앉아 잠이 든 마음을 안는 찬이.

마음이 : ... (가쁘게...하지만 가늘게 숨을 토해내고 있다)

찬이 : (아주 조심스럽게...마음이 얼굴에 손을 올린다)  
마음이 : ...  
찬이 : ...

어느 순간...아주 가늘게 마음이의 눈이 떠진다...이제는 거의 보이지도 않는 찬이의 얼굴...  
이때, 가방을 든 의사1이 방으로 들어온다.

마음이 : !!! (흐릿한 눈으로 의사를 본다)  
찬이 : ... (입술을 깨물고...마음이의 얼굴을 만져주며 눈을 맞춘다)  
마음이 : ... (찬이를 본다)

그렇게 오래도록 눈을 마주치는 마음이와 찬이...

마음이 : ... (가늘게 뜬 눈이 흔들린다)  
찬이 : ... (가만히 고개를 끄덕인다. 눈물이 한 줄기 뚝 흘러내린다)

서서히...마음이의 입에 씌여진 입마개를 떼어주는 찬이...

의사 : !!!

하지만...입마개가 벗겨진 마음이는....힘겹게...찬이의 손에 입을 부벼댈 뿐이다...

마음이 : ...  
찬이 : ...

마음이와 찬이가...마지막으로 나누는 뜨거운 눈길에서...암전... (F.O)

씬/120 찬이집 마당 (N)

(F.I) 마당에 놓인 빈 빨래줄이 밤바람에 흔들댄다.  
어디선가 날아온 벚꽃 잎들이...마치 눈발처럼...조금씩 흩날리기 시작한다.

어느 순간...찬이의 방문이 열리더니...마음이가 방에서 나온다.  
뒤돌아보면...열려진 방문 안으로...자고 있는 엄마와 찬이.  
찬이 뒤척이면 엄마가 찬이를 꼭 안아주고...잠시 머뭇대던 찬이가 엄마의 품에서 곤한 잠을  
청한다. 엄마와 찬이의 머리맡에 놓여진 소이의 책가방이 보인다...  
마음이, 마당을 가로질러 나가다...멈칫 다시 방쪽을 찬찬히 돌아다본다...  
마치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듯한 모습이다...

씬/121 버스정류장으로 가는 길 (새벽)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이른 새벽 길. 벚꽃 잎이 조금 더 흩날리기 시작한다.  
그 속으로...마음이 어딘가를 향해 간다. 마치 누군가를 만나기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씬/122 버스정류장 (새벽)

빈 의자만 덜렁 놓여있는 버스정류장으로...어둠을 통해 마음이 다가온다.  
아무도 오가지 않는 이른 새벽.  
옛날부터 그랬듯이...소이와 함께 찬이를 기다리던 모습 그대로...마음이는 자신의 자리에 서서  
는...앞발에 턱을 기대고...병들고 다친...피곤한 머리를 올린다.  
그렇게 엎드려서...멀리 버스가 오지 않는...흐릿하게 보이는 길을 바라본다.  
그런 마음이의 몸 위로 벚꽃 잎들이 날려 내려와 쌓인다.

동이 터오고 있다. 이른 아침...마침내 저 멀리서 버스가 정류장을 향해 달려온다.

마음이 : !!! (벌떡 일어나 꼬리를 사랑살랑 혼든다)

버스가 정류장에 와 서고...버스 문이 열리면서...가지각색의 책가방을 맨 아이들이 우르르 내  
리기 시작한다.  
깡깡대며...간절하게 누군가를 찾는 마음이...  
그러다...마침내 기다리던 사람을 찾은 듯 반갑게 경경! 짓어대며 꼬리를 흔들어난다.

마음이의 눈으로...이제는 흐릿하지 않은...맑고 밝은 시야로...  
분홍색 책가방을 메고...찬이에게 번쩍 들려서 활짝 웃으며 내리는 소이가 보인다.

반가워서 팔짝팔짝 뛰는 마음이.  
소이가 활짝 웃으며 마음이에 다가와 따뜻하게 안아준다.  
찬이도 활짝 웃으며 마음이에 다가와 따뜻하게 안아준다.  
행복한 얼굴이다. 마음이는...  
그렇게 소이의 얼굴과 찬이의 얼굴을 훑아대면...소이와 찬이 간지럽다며 자지러진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제 세상은 온통 벚꽃 잎으로 가득하다.  
소이가 앞 서 달려가면...마음이와 찬이가 그 뒤를 따라 쫓고...  
찬이가 앞 서 달려가면...마음이와 소이가 그 뒤를 따라 쫓고...  
마음이가 앞 서 달려가면...소이와 찬이가 그 뒤를 따라 쫓는다.

앞서 달려가던 마음이...뒤를 돌아보면...자신을 잡기 위해 깔깔대며 뛰어오는 소이와 찬이가  
보인다.  
다시 달리는 마음이와 찬이 소이의 모습이 행복하게 보여지면서...벚꽃이 화면을 가득 메운다.



썸/123 찬이 방 (D)

빈방. 열려진 문틈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온다.

바람은 오래된 장롱 밑으로 들어가...숨겨져 있던 그림을 한 장 끄집어낸다.

벽을 탕탕 치던 소이의 손...그 바람에 벽에서 떨어져 오래된 장롱 밑으로 들어갔던 바로 그 그림이다.

카메라 밖으로 나온 그림을 비추면...

마음이가 앞 서 달리고...소이 찬이가 즐겁게 그 뒤를 쫓는...그림이 보여지는 중에...

그 위로...벚꽃이 한 잎 날아와...그림 위에 살포시 내려앉는다...

-- 끝 --

[seahog@chol.com](mailto:seahog@chol.com)

크레딧이 올라가던 중에...크레딧 멈추면서...(F.O)

크레딧 썸/1 노부부집 정원 (N)

(F.I) 어두운 밤. 테라스 한 켠에 놓인 출산상자 안에서...

출산을 마친 어미개의 젖을 힘차게 빨아대는 4마리 강아지들의 모습이 보여지던 중에...

노부인 : 여보! 이것 좀 봐요! (당황하고 놀란 표정이다)

노신사 : (뭔가 보면...)

출산을 마치고 4마리의 강아지에게 젖을 먹이던 어미개의 다리 사이로...

양막에 싸여 힘겹게 꿈틀대며 나오는 또 한 마리의 강아지...마음이가 보인다.

노신사 : !!!

노부인 : 세상에...한 마리가 더 있었어요! (놀란 표정에서) (Dissolve)

개집 안에서 축 늘어진 강아지를 밀어내는 어미개가 보인다.  
창문을 통해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찾는 노부부.

노부인 : 가엾어라. 죽었나봐요...(눈물을 찍어낸다) (Dissolve)

개집 안에 있던 어미개의 눈으로...살그머니 강아지를 옮겨주는 찬이의 손이 보인다.  
그리고 사라지는 강아지...어미개의 슬픈 눈빛이 점점 클로즈 업 된다.

크레딧 씬/2 신작로 (새벽)

노부부의 집을 뒤로 하고 달려오는 거친 숨소리가 들린다.  
어둠이 걷히고 여명이 밝아온다.  
강아지를 품에 안고 달려오는 찬이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있다.  
찬이의 가슴 속에서...맨살에 안겨져...더운 체온을 느끼는 강아지의 모습이 보인다.  
찬이가 뛰면 떨수록...따라 가슴이 마찰되는 강아지.  
그렇게, 찬이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흔들리던 강아지가..어느 순간...푸! 하고 가쁜 숨을 토해  
내곤 킁킁댄다...  
어느 순간...강아지의 시선으로...자신을 보는 찬이의 얼굴이 들어 온다.  
그리고....찬이의 얼굴이 뿌옇게 흐렸다가 점점 선명하게 보여진다.

마음이 : ...

그레딧...다시 오른다...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조금만 더 빨리 알 수 있다면...

## 純            情 (가제)

- 제 5 고 -